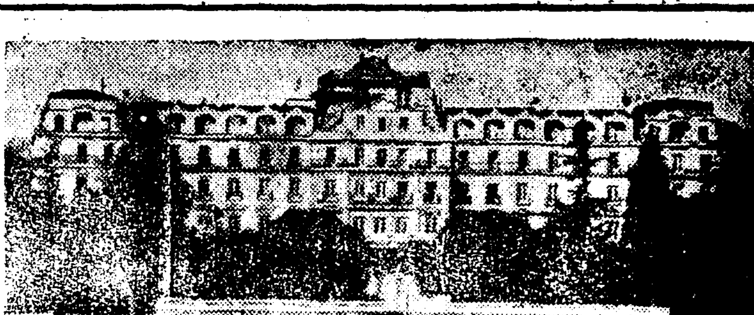
朝鮮日報
夕刊 十九日(金)
本紙朝夕刊十個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朝鮮日報社

國際義務違反國에 軍需品供給拒絶

國際義務一方的廢棄國에의 聯盟의制裁報告案

聯盟理事會에提出



【壽府十八日發聯合】國際聯盟經濟委員會分科委員會는 聯盟理事會의 規定에 基하야 國際義務의 一方的破棄國에 對한 經濟的財政的制裁手段을 調査硏究한 結果 十七日報告案의 作成을 終了하야 理事會十三人委員會에 提出하기로 되엇다 分科委員會報告案內容은 豫防的手段과 本來의 制裁手段과에 區別되는데 各具體方法을 提案하야 本來의 制裁手段實行에 參加하기를 希望하지안는 國家가 잇슬것을 豫想하고 적어도 國際義務違反國에 對한 軍需品 軍用器材 其他禁制品의 供給을 斷絶하야 써 戰爭을 防止함을 目的으로하고잇다 分科委員會案의 骨子는 如左하다

一、豫防的手段
國際義務를 一方的으로 破棄하고 實力에 訴하려는 戰爭國家에 對한 豫防手段으로 軍需品과 軍用器材 輸出禁止를 行함

一、制裁手段、國際義務違反國에 對한本來의制裁手段으로 一切의 通商에 對한 全般的封鎖를 圖하기爲하야 輸出禁止를 斷行함 但非戰鬪員의 食料品供給과 그材料의 貿易은 除外로함 (寫眞은 聯盟本部)

【壽府十八日發聯合】國際聯盟十三人委員會는 二十四日에 再開하고 國際義務違反國 制裁具體方法에 關한 經濟分科委員會의 報告案을 審議하기로 決定하엿다 十三人委員會는 去四月十七日 理事會가 可決한 獨逸問責決議案에 基하야 任命된것으로 將來 條約違反國에 對한 制裁具體案을 作成하야 集團的安全保障制度의 徹底를 期하는것을 目的으로하는것인데 偶然히 에디오피아問題에 對한 特別聯盟理事會의 招集을 目前에두고 同委員會의 審議는 特別히 微妙한意義가 잇다고보인다

杉村駐伊大使 對에「無關心聲明」은 外交上大失態

外省訓電에依치안흔獨斷 政府方針과根本背馳

【東京電話聯合】杉村駐伊大使가 十六日 뭇솔리니首相과 會見한때 日本政府는 에디오피아帝國에 政治的關心을 가지지안헛다고 聲明한것은 本國政府의 訓電으로 하지아니한 獨斷的行爲일뿐아니라 結果에잇서서 日本政府의 根本政策과 背馳되고 誤認歪曲케하야 써 伊太利政府의 利用한바되엿슴은 遺憾한바가 잇게되어서 外務當局은 杉村大使의 言動은 輕率不謹愼하엿다는 非難을 免할수는업고 또 同大使로부터 詳細한 事情의 報告를 求하야 어떠한 行動을取할것으로 期待되므로 日本政府의 에디오피아帝國에 對한 方針을 確然하게될 模樣이다

一、日本政府는 에디오피아問題에 對하야 相當한 關心을 가지고잇다 但 兩國의貿易은年年히 伸長되고잇스나 에디오피아帝國을 保護國으로 하려는等의 政治的野心은 업다

一、그러나 今回의伊에 兩國의 紛爭에 關하야 介入할意思는 업다 다만 推移를靜觀하면그만이다

라는 留保的態度를 取한다는것이 日本政府의 方針이다 그런데杉村大使는 뭇솔리니 首相이 每事에 에디오피아帝國의 日本品의 進出을 敵視하고 驅逐하려는 意思를 表明하고잇슴에도 不拘하고 에디오피아國을 保護國으로함과 如한意圖는업다는言明만을 뭇솔리니 首相과의 會見에서 强調하고 日本의 經濟的關心事를 充分히 表明하지아니하엿다 그러고도 本件에對해서는 本國政府의 回訓에依하야 하지안코 獨斷으로 輕率히 行動하야 에디오피아에 何等野心은 가지●안코 伊太利側으로부터『日本 認』한다는 確約을한것처럼되것은 外交上의 大失態이엇다는데잇다 外務當局은 何故로 同大使가뭇솔리니首相과 會見하엿는지 콤뮤니케라는것은 伊太利政府의 發表한것인지 그與否를確探하야 報告하라고 訓令을 發하엿는데 伊太利가 如斯한發表를하엿다고하면 이것의 是正 撤回를 要請하게될터로 그推移는 注目된다

新聞小史 (十二)

乙巳時代의新聞

野落春殘、百花亂發

民世學人

前回發表한 小史中 詳細를 要하는者잇기로 當時의紙面을 參互하고 新聞界耆宿의 말슴을들어 前回(十一)第六段 第一行부터 改作함 讀者는그諒解하시압

×

이러한 危難의局은 저절로 險惡한 朝鮮人의 神經에針질하야 한便으로 新敎育의 振興運動이되고 또한편으로는各種新聞의 刊行을 보게되것이며 統監政治의前年을當하야 朝鮮에 작구건너오는 日本人도또 각각 그新聞을 刊行하게되매 京城에서는 朝鮮文新聞에 뭇득 十三種에 達하야 未曾有한 狀態를 나타내엇다 皇城帝國이 經營難과 言論抑壓속에 持續하는한편 光武九年乙巳六月에 梁起鐸氏等은 英國人裵說氏를 擁하야 自來의『每日申報』(李章薰發行名義)를 引受하야 大韓每日申報로 改題經營하엿고 光武十年 六月十七日 日本에서 돌어온吳世昌氏는 天道敎의 義菴孫秉熙氏와의協力으로 萬世報를 發刊하야 自己는社長 李人稙氏는 總務員이엇스니 그壽命은 길지 안엇스나 諺漢文으로 記事를쓰되 漢字의여페『루비』를부처는것이 그 特色 이엇섯다 當時 大韓自强會會長되든 者 잇서 各界名士가 一時에總集하엿든 터이니 그의主要幹部 尹孝定 沈宜性等氏가 同六月十八日付로 朝陽報를 發刊하엿스니 每月十、二十五兩日로 二回式 發行하든 者이오 同十月十九日付로는 天主敎會의經營으로 純諺文의 京鄕新聞이 週刊으로 刊行되엇고 同年中政治的政團인 一進會는 國民新報를發行하야 一進會의 自家宣傳 賣國振張等이 그를主宰하엿섯고 追後로 萬世報의 經營이 不如意하매 李人稙은그設備를 引繼하야 李完用系의 大韓新聞을 刊行하엿섯다 좀느저서 隆熙三年 六月二日 吳世昌氏는 다시 大韓協會의 領袖로서 大韓民報를 刊行하엿고 同 十二月十日에는 安粥善氏 名義의 大同日報가 刊行되엇다 往年己未以後 東京에서誤死한 閔元植氏 그一流의 思想에依한 時事新報를 刊行한 것도 이때의 일이엇섯다

×

이보담먼저 張志淵氏는 玄映運 洪中變 數氏의 助力으로 光武三年一月二十四日부터 隔日刊의 時事叢報를 刊行하야 지금이면 文藝欄에 該當한部에 狗杏花開虎蝶來의 懸賞漢詩를걸고 그對句채우는者를 뽑는것도 斯界의 一揷話이엇더니 追後로 皇城新聞에 合流한事情은 前述이잇다 現國民同盟總裁인 東京의 安達謙藏氏까지도 千與한 歷史를 가진 漢城新報가 廢刊된대신 大東新報란者 진고개에 그本社를두어 光武八年 四月十八日부터 當時親日紙的 色彩를 띄엇든者잇고 荻谷某의 大韓日報와 古賀某의 中央新報란 者 光武十年一月부터 刊行되엇스니 모다그들로서 多少의 政治的意圖를 품엇든者인것이다

×

皇城新聞은 創述과가티 柳瑾 朴殷植 張志淵 諸氏의名儒碩士가 모엿든바인만큼 항상與實敎厚한 論法으로 多難한 局에 對應하엿든 바이오 帝國新聞은 李承晩氏를 일코 李鍾一氏도 그만둔後 鄭雲復氏 이를主宰하든바 그때까지에는 鄭氏 自彊、大韓 兩協會의 幹部로 때로는 大臣되다는 소문조차 잇든터이니 그新聞은 民衆運動의 一表現機關인 구실을 잘하든者 이고 萬世報는 李容九 宋秉畯等 一進會를 排斥하는대 하야 孫秉熙氏一派의 對抗으로서의 傳統을 固守및擁護하는 人士들의 發刊으로 意義 잇든 者이오 大韓每日申報는 裵氏의外에 林蔚止 安泰國數氏가 그經營事務에 當하엿고 丹齋申采浩氏筆陣을맛고 安昌浩 李甲等 後來 西北學會에 關係깁흔 諸氏도 緊密한關係를 가저 裵說氏의 發行인것을힘입어 자못尖銳한 論鋒을 나타내이매 某處로부터는『排日紙』의 指斥을 밧든者이엇섯다 國民新聞 大韓新聞은 宋秉畯 李完用等數氏의 意思에서 울죽이든者이니 追後別說을 要하고 海外에서는『하와이』의 新韓國報 桑港의新韓民報 海蔘威의 大東共報等이 모다 在外韓人의 發行하는 純諺文紙로 異彩를도앗고 마치現下의赤色新聞처럼그輸入의途中 押收와 發賣禁止를어덧다는 報道를 흔히傳하든者이다 政治的局은 할수업도록기우러젓는데 各色의新聞이 內外에서 簇出한것은 마치 春風이 다 지나는데 뒤느진꽃이 한時로 피과가타서 부치럽시 後人無限한恨을 자어내는者이다

日埃通商條約廢棄 埃及政府서通告

日本綿製品에關稅引上할듯 圓貨防遏의障壁擴大

【電通카이로十八日發】埃及政府는 日埃通商條約을破棄하엿다는 旨를十八日日本政府에 通告해왓다 그結果近近日本綿製品에對한 關稅引上을行할것으로豫想된다

伊에紛爭調査團

英政府、理事會에提議乎

【倫敦十八日發聯合】英國政府는 和協試案의失敗에 屈하지안코巴里、羅馬駐箚大使를 總動員하야 伊에兩國紛爭의 平和的處理에 最後까지 努力을繼續하고잇는데 十八日午後零時三十分首相官邸에 重要閣議를開하고 다시對策을協議하엿는바 依然聯盟機構에依하야 滿洲事變當時의리톤委員會와同樣으로 中立國代表로된 聯盟調査團을 任命하면 어떨가하는 新對策案이 提示되엇다 이 和協委員會가 決裂되어 伊에國의 國交關係가 極度로 緊迫해잇는 實情에 鑑하야 爲先 調査團을 設置하야 破局의 到來를 阻止하고 그동안에 伊、에兩國의 輿論이 平靜에 歸하는것을 기다려 어떠한解決法을講究하려는 方針인데 同法案이드되어 閣議에서 採擇되게되면英國代表는 來特別理事會席上에서 調査委員會의 設置에 奔走할것으로보인다

米政府어데까지 平和解決要望

伊에戰端開始阻止

【華盛頓十八日發聯合】米國政府는 伊에兩國間의 形勢重大化를 懸念하야 極力 戰端開始를 阻止하기로 決定하고 各國駐箚使臣을 總動員하야 各國政府에 對하야 米國政府는 끗까지 紛爭의 平和的解決을 要望한다는 旨를 通達하야 關係國政府의 善處를 要望하엿다

駐米伊大使에 注意喚起

米國務次官言明

【華盛頓十八日發聯合】國務省의發表에依하면 필립스國務次官은 十八日 新聞記者團과의 定例會見에서 에디오피아問題에 關하야 米國政府의 方針을 言明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次官은 去十日、十一日의兩日에亘하야 華盛頓駐箚英、佛、伊三國大使를 國務省에招致하야 에디오피아問題에 對하야 經過에對한 各國政府의 方針을 聽取하고 米國政府의 立場을言明하야 平和的解決에對하야 各國政府의 注意를 喚起하엿다 特히 伊太利大使 못소氏에게 對해서는 米國政府는 戰爭行動의發生에 無關心할수업다는 뜻을 通達하엿다 또 國務省은 在外使臣에게 政府는 紛爭의 和平的解決을 切望한다는 旨를 各國政府에 傳하도록 訓令하엿다 但 問題는 目下歐羅巴諸國에 關한것을 思惟하는것으로 直接 介入할 意思는 업고 聯盟理事會에도 옵서버를 派遣치안는다

『에』國皇帝、勅語로써 全國民을激勵!

自重態度抛棄를意味

【電通아디스아베바十八日發】에디오피아皇帝 하일레세라시에陛下는 十八日 議會에 如左한 全國民을 激勵하는 勅語를 내리시엇다

朕은 에디오피아國民이 祖國의 獨立維持를爲하야 如何히 싸울것을 知悉하는同時에 祖國防衛를 爲해서는 敢然히 功名을 賭할 覺悟를 가진줄 確信한다 지금伊太利首相 뭇솔리니氏는 모든近代的武器를 가지고 에디오피아包圍를 威壓하고 잇다 朕은 이非常時局에 當하야 에디오피아全國民이 祖國防衛를 爲하야 擧國一致 忠誠의 誠을 다할줄밋고 疑心치안는바이다

【電通아디스아베바十八日發】에디오피아皇帝는 十八日 議會에서 別項과가티 强硬한 對伊態度를 表明하섯는데 消息通은 皇帝의 演說은 에디오피아가 隱忍하던 態度를 抛擲하고 칼을 빼어들엇다는것을 意味하는것이라고 解釋된다 一部에서는 聯盟理事會를 기다리지안코 에디오피아가 斷乎한決意를 表明하것은 對內的意味를 가진것이라고보인다

伊에紛爭和平解決에 國際諸條約活用하라

駐英米大使本國政府訓令에基하야 英國의蹶起를促進

【電通倫敦十八日發】駐英米國大使는 伊、에兩國間의 風雲이 더욱 急을告함에 鑑하야 本國政府의 訓令에 基하야 호어英外相을 訪問하고 右紛爭處理에 關한 米國의 意向을 傳達하고 아울러 英國政府 最近의 具體的對策을 聽取하엿는데 確聞하건대 빙검大使의 表明한 米國의 態度는 如左한 趣旨로된것이라고 解釋된다

一、伊에紛爭은 平和的手段에依한 紛爭解決을 目的으로하야 存在한 國際諸條約을 活用할때라고認定하고 米國政府는 이것으로써 戰爭이 防止되기를 世界平和를爲하야 切望하는바이다

一、米國政府는 歐洲國이아니오 또 聯盟國이안닌 立場上 代表를 派遣하야 聯盟其他의 善後策會議에 正式으로 參加할 意思를 가지고잇지안흐나 켈록、부리앙不戰條約을 包含하는 上記諸條約을 運用하야戰爭을 防止하겟다는 熱望은在外外交機關에게 米國政府로부터 熟知케한바이다

一、米國政府는 如何한 國家에 對해서도 숨기는바아니다 特히 利害關係國인英國에 對하야 이것을通達하야 事態推移에 關係國과 連絡을保持하기를期하는者이다

日埃通商條約廢棄通牒手交

埃及圓貨防遏에 外省對策考慮

【알렉산드리아十七日發聯合】埃及政府는 十七日 알렉산드리아駐在天城總領事에게對하야 日埃通商條約廢棄通牒을手交하엿다

【東京電話聯合】埃及政府는 日本品에 爲替保障稅의 附加에依한 防遏을 講究하고잇던바 十八日 알렉산드리아 天城總領事로부터 外務省에 達한公電에依하면 兩總領事의交涉도奏効하지못하야 十七日右主旨의報告가 英國에 派遣되어잇던埃及使節로부터 公表되어 同日의埃及閣議에 附議되엇는데 發令될形勢에잇스므로 日本의綿布輸出에多大한 影響이잇슬것이라고그對策에對하야 外務當局에서도慎重히考慮中이다

人事·集會

▲金詩庸氏(세부란스醫院齒科醫師)十八日 黃金町一丁目一四五番地自宅에서 遭外艱喪

▲田時燁氏(平壤田和醫院長)今朝入京本社落成人事次來訪十九日午後三時退京

通商擁護法發動通告로 加政府日本의再考要請

【오타와十八日發聯合】加奈陀政府는 通商擁護法發動에 關한日本政府의 通告를接受하는同時에 情勢를 重視하고 十七日午後에 緊急閣議를開催하엿는바 席上에서 베네트 首相은 日本政府의抗議內容을 披露하고 國內의事情과外國과의 通商關係도 指摘하야意見을 交換한結果 덤핑稅는決코 日本品에 對한差別待遇를 意味하지안는다는 旨를强調하야거듭日本政府의 考慮를 要請하기로決定하엿다고 解釋된다 閣議後베네트 首相은 加藤公使를 招致하고會談을 遂하엿는데 또十八日은 外務省首腦를 招致하고 長時間동안 協議한다음 日本政府에新通告를 發送하엿다 베네트首相은 十八日도 加藤公使와會見하엿는바 會見席上에서 極力 加奈陀政府의 立場을强調하엿다

加奈陀態度도 依然强硬

【電通오타와十八日發】惡化의一路를 밟고잇는 日本加奈陀通商關係의 破局을 回避할 目的으로서 關稅問題에 關한 外交交涉은 十八日 베네트加奈陀聯邦首相과 加藤公使間에 再開되엇다 本會談에 際하야 加奈陀側은 依然 强硬한 態度를 가지고 通貨를 低落시키고 잇는國家에 對한 特別課稅政策을 改訂할 意思는 거의 가지지아니햇다는것을 宣明하엿다

八面錄

佛首相이 財政安定을爲하야 新法令發布까지는 當然한順序이나, 이에對한反對가잇슬가하야 自由會合과 示威運動을 禁止할까지는 佛國의傳統으로異例。

◇埃及이 對日通商條約廢棄를通告。

◇綿布와人絹에·操短할材料가 또 하나 생기는모양인가。

◇伊에紛爭問題로 聯盟이또 特別理事會를 열겟다고。

◇아즉도 聯盟이라는 機關하나가 壽府에 남아잇다는證據로는必要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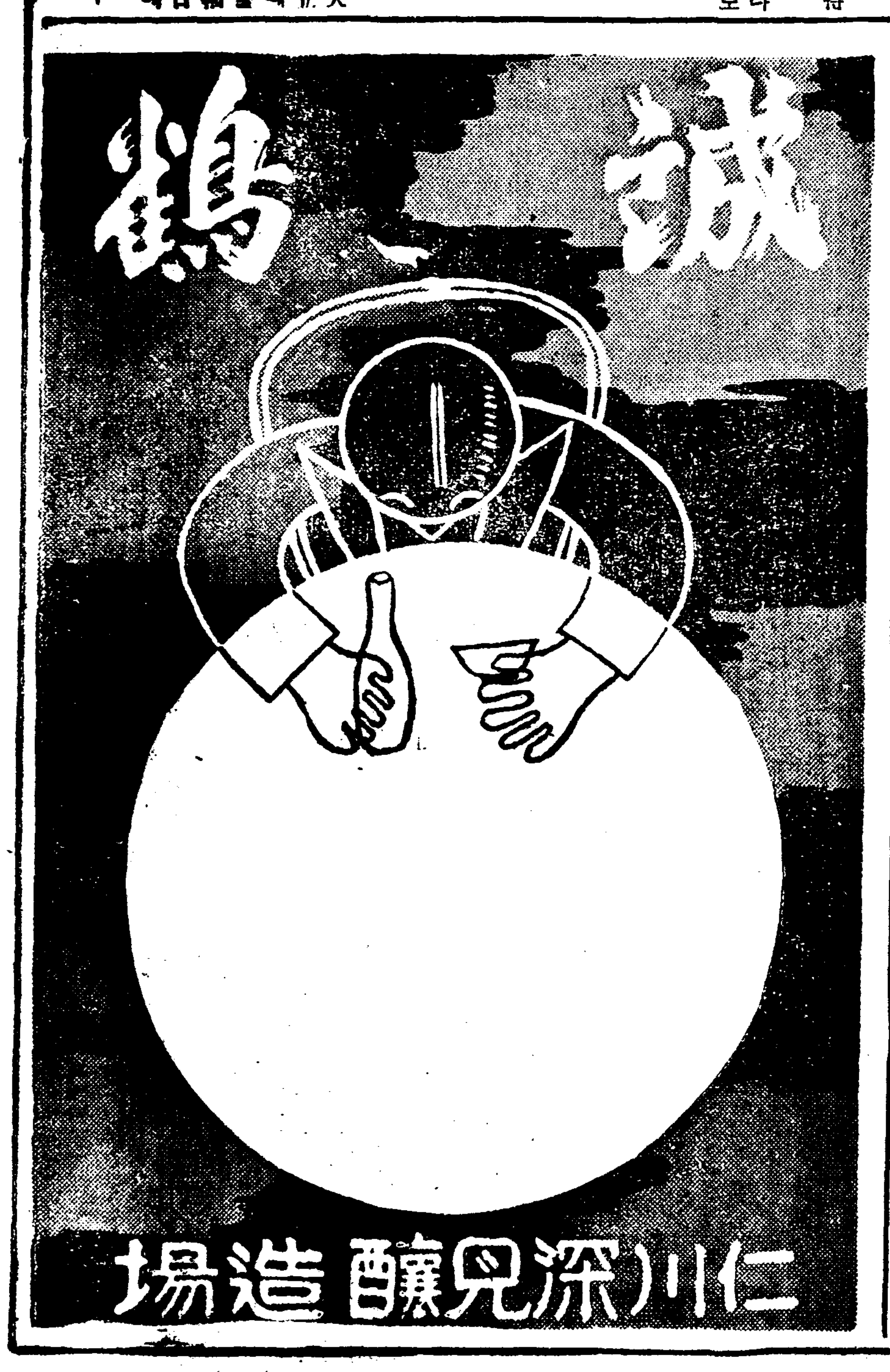
第二次要求不容하면 斷乎撤兵을要求

關東軍、滿洲國外交部의要求支持를 外蒙古政府에通告乎

【新京十八日發聯合】하이라스텔고르事件에對한外交部의 第二次要求內容은 第一次要求의 重要點인 代表機關의 派遣常駐에對하야 再次 嚴重히 要求한것인데 第二次要求는 當然히 第一次要求를 前提로한것으로서 代表機關의派遣常駐가 許容되지안는境遇에는 탐스크合及 소레이트의 外蒙兵의 撤退를 要求할 것은勿論이지만 關東軍은 滿洲國外交部의 要求를 共同要求로서 全幅的으로 支持하고 第二次要求가 容許되지 안을境遇에는 斷乎撤兵을 要求하고 積極的解決策을 取할터로 그推移는 매우注視된다

【新京十八日發聯合】하이라스텔고르事件에對한外蒙政府의 正式回答에 對하야 關東軍으로서는 共同防衛의 見地와 拉致된、犬養測量手가 關東軍의 囑託인立場에서 第一次要求를 하엿슬때와가티 外交部의 第二次要求를 곳關東軍當局의 要求로서 全幅的으로 支持하겟다는旨를 今日 櫻井機關長을 通하야 外蒙側에 通告하기로되엿다

次紙 夕刊八面



배를채우지마라! 차게자지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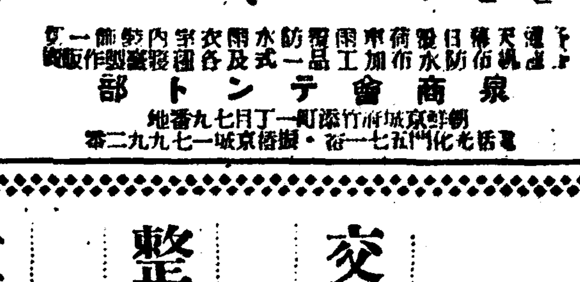
腹痛タミン
腹痛食傷에잘듯는
頭痛에는따로(タミン)잇슴 大阪北濱·參天堂株式會社 444
大谷藥學博士創製 內服藥·廿錢부터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筆業○勤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最新流行品實物見本進呈
▲朝鮮男女衣服감(各種세루、各種絹物)朝鮮人向地質이豊富하오니 반드시財成商店朝滿係로下命하시요 今番에는特히朝滿係를新設하고 出張員數名을파견하엿사오니 倍前愛顧하여주시믈비오며 多少에不拘하고注文이라도定價로 代金引換으로付送합니다 但實物見本을要하시는분은 郵便切手二十錢을添送하여주시는분에限합니다
綢緞布木 各種세ー루 卸小賣
東京市深川區萬年町二ノ一
財成商店朝滿係

恩給
良好條件低利立替 他에比較業最有利 信用은驛店으로 特色은照會回答
京城府校洞一六○ 鄭商會

말더듬이
訥言矯正院 專門
一 治療完全確實 一 案內書無料送呈
京城府梨花洞二〇四ノ三



泉商會テント部
朝鮮京城府竹添町一丁目七九番地
電話光化門五一七一番 振替京城一七九九二番

交通至便 ◇ 整地完全 ◇ 位置高潔 ◇ 眼界快闊

下往十里安靜寺入口◎電車停留場北側

住宅地分讓

詳細事項은 市內公平洞(木原村) 京水自動車部 電光八一八番 文理榮에게 로問議하야 주시요

宣傳은"作業中"이나 鎔鑛爐點火單二處

日本內地서온熟鍊工十數名의修繕뿐

會社側策戰結局失敗

【兼二浦支局電話】당지일본제련소직공이파업을한지 오늘로제칠일인 동시에특히회사측으로부터 취업기한을통고한 십구일이지라 파업단측의동태가 자못주목이되는데 당일아츰회사측의발표에의하면 숙련직공칠십오십명가운데 약삼백명과 운반인부백명가운데 약삼백명이 취업을 하엿다고하엿다。그러나 실상 내용을알고보면다섯개의용광로가운데 두개에겨우불만되어잇슬뿐이요실질적작업은하고잇는가싶지아니하다 뿐아니라회사측에서는 심칠일부터일본의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언명하엿슴에 불구하고그생산고는비밀에부치고 역시작업중은 허세에불과함이요 또일본내지로부터 숙련직공오십명이온다는것이십구일아츰에 겨우십이명이도착되엇는데 그나마도구러진용광로의수선공인것이 판명되엇다 이리하야회사측의 제이단적공작도 내용적으로는 실패에도라가고파업단측의 숙련공들은더욱 공고한 단결하에일사불란의 통제를취하고잇스며 십팔일밤에는 규칠대까지 선발하야공장측의 파업단 봉괴책을경계하엿다。그리하야 회사측에서는 다시제삼단의 전술을회책할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과연어떠한것일는지 자못주목이된다

罷業應援隊왓다고 警察警戒만尤甚

罷業團은緊張活動

【兼二浦支局電話】일본제련소파업직공에대하야 회사측으로부터 최후로 기일을통고한 십구일을 앞둔 십팔일밤에는 경성등각지로부터 파업응원대가 진남포에 잠입하야 대대적으로 활동한다는정보를접하고 경찰당국은더욱 긴장이되어 활동중이나 아직아모런소득도업다 파업단들은여전히 최후까지 목적관철을기약하고활동중이다

大阪에建築된 同胞들教會堂

일만이천원의거금으로 盛大히獻堂式擧行

【大阪】소화오년십일월일일에대판에 재주하는 긔독교 교역자 외 유지들이모히여 재일본조선긔독교대판중앙교회당건축기성회(大阪中央教會建築期成會)를 조직하고 바상봉(朴尙東)리원도(李元道)씨 동회의위원들의 부단의노력으로 일본내지와 조선내는물론 멀리 미주에서까지 의연금을모집한것이 일만이천여원에 달하여 동회에서는 금춘부터 동성구저사야대통일정목(東成區猪飼野大通一丁目)에다대지를 매수하야건평칠십팔평의반이층반양제의교당을신축하고지난십칠일오후두시반부터 동교회에서 오택관목사(吳澤寬)의사회하에 성대한헌당식(獻堂式)을 거행하엿다가각지에서온축전축문만 이백여통이나되엿스며 내빈중 난바스텐화교에 삼전전한(森田殿丸)씨와 본사대호에고려위(高麗偉)씨와신판지국장 김광수(金光洙)씨의의미심장한축사가잇섯다

東京地方에強震

【東京電通】

대(??)방면에 ㅁ 착임대에 강진(??)에잇서 시거외측이 정지될정도에 이르럿다한다

◇싱싱하게 잘아는 채소…… 금일서장에서

平壤驛員이 公金萬圓消費

共濟貯金通帳保管者가 三年間에萬圓橫領

전번에 평양역차구(機車區)원의 운괴(獸)절취사건이 발생되지얼마되지안하야이번에또평양역에서 공금소비사건이발각되야 철도국에서는 이에대하야 단호한처분을내리기로되엿다 즉소비한사람은평양역어무계 고원관리용태랑(廣瀨熊太郞)(폐)으로 이는이역의서무(庶務)를 마러보아종사원의공제저금통장(共濟貯金通帳)을 보관하는것을 긔회로소화팔년부터금일까지삼개년동안에 감룡장에서현금을차저내어소비한것으로 그피해액은 약일만원에달할모양으로 방금관계방면에 개엉중취조중인데 철도국에서는 이지방면에 엄중한감독을할터이라한다

大阪夏期修養會

【大阪】재일본조선긔독교공려청년회관서련합회(共勵青年會關西聯合會)에서는

二千戶土幕民을 一定地에收容授産

公園候補地도適當히擇하자고

京城風致委員會協議

사십만시민을 수용한 경성을명랑도시로 만들려는 경성풍치계획위원회(京城風致計畫委員會)에서는 그간경성시내외에 풍치구(風致區)및 공원구(公園區)설정하고 사방공사(砂防工事)보통식재(普通植栽)실시 공원(公園)소지내에 보호원(保護員)설치 소공원(小公園)과 및록지대(綠地帶)설지 공설세탁장(洗濯場)개설 등각방면에 걸처서 여러가지시설을 하야 상당한 성적을 내여오든바 십구일에는 오후한시부터 경기도청회의실에서 제이회 위원회를 열고 위원장부영(富永)경긔도지사의 인사가잇슨 다음의안인 토막민(土幕民)정리문제와 공원예정지인 국유지처분에 관한건과 및경성에시가지계획령(市街地計畫令)적용에 관한문제를 토의하엿는데 대개다음과가티 의견이일치되엿다

一、경성부내외에 산재하는 토막민의호수는 약이천호에 달하야 풍치상위생상 도저히이대로 방임할수업슴으로 적당한곳에 이전지를 선정하야 이곳에 수용정리하는동시에 그들에게 수산(授産)교화(敎化)사업을 시행할것과

一、공원예정지는 대경성실현을예상하고 경성부에서 방금후보지를 물색중인데 현재국유림중에 적당한곳이만흔바 이국유림이 민간의손에 한번너머가게되면 장래 공원을설치하기에 곤난이만흘터이라 될수잇는한 공원후보지인 국유림처분을 중지하여달라고 당국에 요망하자는것과

一、경성부근의 산림(山林)은 대개 보안림(保安林)으로 서취체하고잇스나 보안림 이외의산림과기타 토지도잇서 무룻체하기가짝이업서 이곳에시가지계획령에의한 풍치지구를설정하야 취체코저하나 현재경성부에는 아직시가지계획령이 적용되어잇지안하야 자못곤난한바가만흐즉 속히시가지계획령을 적용하도록 당국에 요망하자는것등이엿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성부근의풍치유지증진을 위하야지출된금액은 다음과갓다고한다

砂防工事	八七、八五四圓	(國費)
普通植栽	一一、〇三四	同
公園施設	三三、五七六	(府費)
散策道路	三、六八二圓	(國費)
小公園	四、〇〇〇	(府費)
綠地帶	三、九四〇	同
土幕民整理	四、〇〇〇	(道費府費)
公設洗場灌場	七、八五三	(府費)
計	一七五、九三九圓	

江景洋靴工

【江景】강경양화직공일동은 지난지원이래 고주측에대하야 하절산긔에 생활보장할방도가업다하야 공임인상을 요구하는동시에 긔성품제조공임도 주문품과동일한공임을 주어야되겟다고 요구한바를 고주측에서는 공임선불도 종래직공들의 례를보아서 출수가업스며 긔성품은 일단지공구제책으로 운전자금을고정식히는 룰편이 잇스면서 오직 직공들의생활을 위하야 희생하는것이라하야 전부 거절하여오든중 지난십륙일김상덕양화부(金相德洋靴部)직공일동이동맹파업을하야 단행하엿다는데 고주측에서남산대구(森山大郞)등지에서 신직공을 모집하야 취업케한바 십칠일오후시경 직공회대표리동근김영창(李東根金榮昌)등은고주측에 항의를하는동시에 대구에서 모집한직공들을 즉시돌려가라고 란타풀행하야공기가매우 협악함으로 강경서고등계에서는 검거하엿다는바피검된 직공은 좌와여하다고한다

李東根 李東五 金泰昌外七人

全日本軟式庭球代表와 全京城軍이對戰

一行은廿六日午前三時着京 廿七、八兩日改築코-트서

軟式庭球界에잇서서 破竹之勢를 보이고잇는 京城軟式庭球界의 劃期的大試合! 全日本選拔軍이 京城에 來訪한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一行은全日本選拔軍中에서 六組、全日本實業團中에서 一組를 選拔하야 方今 京都에모여 練習中인데 來二十六日午前三時五分京城驛着列車로 來京할터이라하며 이와對戰할全京城軍은 全部 十一組를選拔하야 連日龍山鐵道局코-트에서 猛練習을거듭하고잇다 이번의對抗戰은 擴張改築工事中에잇는 京城運動場코-트의完成을기다려 來廿七日、廿八日의兩日間(午後三時競技開始)同코-트에서 열리게되엿는데 各히七組가出場하야 對抗케되엿다하며 實力伯仲한 兩軍의對戰은 白熱戰을展開할것으로期待된다

陸上代表豫選會 廿四日에催開

文理大와對抗할

全朝鮮陸上競技協會에서는 來八月四日에 開催되는文理科大學對全朝鮮陸上競技對抗戰에 出場할 全朝鮮代表選手選拔豫選會를 來廿四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行할터이라한다

信聖學校登山隊

【宣川】宣川私立信聖學校登山隊員十五名은 寧邊妙香山을探勝하고저 十九日午前八時二十分宣川發着行列車로 [illegible] 下에出發하엿다는데 往復七日間豫定이라한다

都市對抗卓球 朝鮮豫選戰

廿一日에擧行

八月十七、十八의兩日間京都市에서 開催되는 第四回全日本都市對抗卓球大會에 出場할朝鮮代表都市를選拔 朝鮮의第二次豫選大會는來二十一日午前十時부터來靑閣에서 擧行할터이라는데參加都市는 京城、仁川、開城、平壤의 四都市라하다

米國野球리그 十五日까지戰績

【紐育十五日聯合發電】米國에서 方今擧行中에잇는「메자-리-그」戰의 七月十五日까지의戰績은 다음과갓다고한다

◇아메리칸·리-그戰

	(勝)	(敗)	(勝率)
양키-스	四八	二八	六三二
타이거-스	四七	三二	五九五
화이트속스	四二	三二	五六八
인디안	三九	三六	五二〇
렛드속스	四一	三八	五一九
아슬레틕스	三三	四〇	四五二
세네다-스	三三	四五	四二三
뿌라운스	二二	五四	二八九

◇내쇼낼·리-그戰

짜이안스	五一	二三	六八九
카디날스	四七	二九	六一八
카뿌스	四六	三二	五九〇
빠이렛스	四二	三七	五三二
렛-스	三七	四二	四六八
토지야-스	三三	四二	四四四
내쇼낼스	三一	四五	四〇八
뿌레빅스	二一	五八	二一五

京城行軌道車 九月엔電化

경성궤도회사(京城軌道會社)에서는 뚝도(纛島)동대문(東大門)사이의 궤도전화(電化)를결정하야 구월부터 실시하도록 목하그준비를진행하고잇는데 차량은 경전(京電)에서 차입키로되엿다더욱명년도부터는 전선(全線)전화의실현을보게될예정이다

頻發하는溺死 平壤서四件

【平壤】수은주(水銀柱)폭등과 물의유혹으로 매일가티 내고잇는 희생자—십륙일오후륙시 부내차관리(鈷貫里)관동면옥 (??屋) 고용인 김인선(金仁善)(三三)은 련광정(練光亭)압 대동강에서수영을하다가 빠저죽엇는데시체는 십팔일에도 발견치못햇고

▼십칠일오후두시경 부내평천리(平川里)련병장(練兵場)부근보통강(普通江)안에 십팔、구세의꼿가튼처녀의 의사체가 부러잇는것을 통행인이 발견하고 평양서에게출한바 신원이알수업서 방금가방면에 조회조사중이라한다

▲십륙일오후두시삼십분경대동군고평면차리(大同郡古平面車里) 정동원(鄭東元)(三)동리압강가운대서 수영중의사햇다

▲십륙일오전여덟시대동군시족면원산리(大同郡柴足面元山里)탄항부(炭坑夫)김영춘(金永俊)(二二)은 동리압강에서 수영중의사하엿다

死境의窮民을 洞民이醵金互助

豊山郡里仁面有志들의誠意

糧米와種穀을配給

【咸興】홍작이나홍수가경미하다할 남풍산군리인면(豊山郡里仁面)은 작년도의 랭해지중에서도가장혹심한곳으로 전동수백호수천여명인구가모다팔구개월동안 산채목피로 겨우연명하여오든관계로지금에이르러서는전부가 영양부족과 부황병(浮黃病)으로빈사의위경에 직면하고잇다는바 이를참아볼수 업다고하여 그중에서도종호구나 하여가는사람들이서로 자금을유통하여 식량조와등을배부할간계 한미당이속출하는형편이니리인면 신풍리(新豊里)박근효(朴根孝)동리신성완(申成完)황병인(黃炳寅)의삼명은이백오십원을금융조합에서대출하여거의절명의위긔에잇는 오십삼호에분급하엿고리인면김병환(金炳煥)외삼십삼명은 이백구십오원을 약산면(安山面)고봉침(高鳳侵)외십구명은 일백칠십오원을거출하여 종곡(種穀)을배부하엿고 태멸일(太鳳意)외사십사명도일백팔십원을의연하여 식량을배부하여 동민이서로도읍는미풍을보이고잇서 일반의 칭송이놉다

窮農만흔慶北에서 去月中渡航二千餘

農村에서生途를일코出鄕

阻止된것만三千餘名

【大邱】경북도내에서 지난달중에 살길을찾고저 버리조타는일본내지로 드러가려다가 경찰에게저지당한 조선농촌의농민이삼천이백팔십명이나 달한다하며 중명이잇서서 도항자(渡航者)가이천오십구명 이란는데 각군별에 의하면 다음과갓다고한다

	渡航者	阻止된者
▲大邱	三八六人	四二八人
▲慶山	九〇	一二一
▲永川	九九	一〇二
▲浦項	一六九	一一四
▲盈德	二一	三六
▲英陽	五	三四
▲靑松	三七	八九
▲安東	九五	九八
▲義城	一二八	二四九
▲軍威	八四	四七八
▲漆谷	七七	一八二
▲金泉	二五〇	二四五
▲尙州	五〇	一二一
▲醴泉	四二	一四二
▲榮州	二一	三三
▲聞慶	三〇	一二八
▲星州	四四	一一三
▲高靈	九二	一〇一
▲淸道	八九	八四
▲善山	三三	八一
▲鬱島	一	二

間島武裝共軍 總勢三千餘名

輕機關銃까지가지고잇서

討伐도容易치안타고

조선군사령부부전참모(富田參謀)는 국경간도(間島)와훈춘(琿春)등지의 시찰을마치고 십팔일에 귀경하얏는데 간도지방공산군의 현세에 대한귀래담을듯건대 구동변도(東邊道)즉 현재안동성(安東省)부근의토벌은 단순한비만(匪反)동(反滿軍)과 구마적(馬賊)등의 것으로되 간도성(間島省)일대의 토비이란것은 거의전부가 무장공산당(武裝共産黨)으로 그동안 토벌대가 자조출동하야 토벌한만큼그전보다는그수효가 훨로줄엇스나 아직도 무려삼천여명의 다수가잇는데 그들중모다 근대식병긔의 무장을 하야 대개경긔관총(輕機關銃)가튼 것은 다 가젓스므로 그러케 경멸할수는업스며 무긔의 공급경로는 모국(某國)의손이움죽이고잇는것도사실이나 그이외에도다른경로도잇는모양으로「체코스로바키아」제의병긔들이적지아니하게잇는모양이라한다 이들공산군은 그동안토벌대에게 토벌바든경험을비취여 새로운책전으로 집단(集團)에서 분산(分散)으로전향하야 이제와서는조그만큼식한다수의소집단으로 나누어가지고이동하여활동하기때문에 토벌대도여시그런정책으로 맛바다토벌중이나그 고심이여간이아니라하며 이들공산군의 대부분은 조선인인것이 또특색이라한다 그동안은 그들에게따다니는 군중이만엇섯는데 그들은토벌대의토벌과식량의부족 탄약의보충등으로이들을 돌려보내서 귀순(歸順)을식이고순전한 자긔네끼리만도라다니며출몰이무상하기때문에 토벌대가토벌상더욱곤난타고한다

殺人安東稅關吏 斷乎히處斷하라

新義州府民極度憤慨

【新義州】국경안동세관감시선원의 구타살해사건에 대하야는신의주경찰에서 계속하야 피해자들을 취조하며 증거품을수집중인데 피해자들의 말을종합하면 사망자김리건(金利鍵)의머리를구타한 몽둥이는 그배에서사용하든사아스대인데 굿테쇠로마구리한것이라한다 세관감시선원들은 굿데쇠가달닌 이사앗대 앗대가 부러지매 다시쇠가달닌 편을 주서가지고 따려 물속으로 너허버린것이라하며 이사앗대는 유력한증거물로 신의주서에서 압수하얏다한다

안동세관감시선원이 밀수범이라하야 강가운데서 타살한사건에 대하야 신의주서에서는 방금증거품을수집중이나 검사국의지휘가잇기까지 살인자=즉안동세관 감시선원에게대하야는 아직하등의취조를 하지못하고잇는데 이귀결이 장차어더케될는지 예측할수 업스나 하여간이는 만주세관리가 조선땅에까지드러와 몽둥이로 사람을따려죽인것이 확실한것으로 이것이증거가명확하야도 만일종래와가티 유야무야중에사라진다고하면 법률의존재를어듸서볼것이냐하야 신의주의여론은더욱비등되는중이라한다

慈城法洞對岸 四十名의共軍

지난십칠일오전일곱시경에 두목해산(海山)이거느리고잇는무장공산당(武裝共産黨)사십여명이네대로나누어서평부자성경찰서법동주재소(平北慈城警察署法洞駐在所)대안 중안현제사구(輯安縣第四區)에잇는 대수대부락(大水壽部落)을 일거(襲擊)하야 만주국인이경영하는 잡화상 중화상(中和祥)집에 방화한후 한명을인질로 붓들어갓다는 급보를바든 당지경찰대원은 곳출동후경중에잇다한다

天氣豫報

曇小雨

低氣壓은 山東半島와上海附近에잇서 거의움지기지안코잇고 颱風이臺灣東南海上에 發生하여잇다 高氣壓은樺太方面에서沿海州를거처 半島東北岸에뻐처잇다 滿洲와朝鮮은날이흐리고 處處에비가나리다 日本一帶는흐리고잇다

昨日最高 二八、六
最低 二〇、一
今日正午 二五、二

東京下關間을 十三時間에

新京까지卅五時間目標로

鐵道省明年實現方針

【東京電話聯合】「칸슐리카」의호성적으로 교통일본은 일대혁명시대에들어가 철도성에서는 현안중의초스피드」쿠선형렬차로서 동경하관간을 열세시간에 주파하려는 획긔적프란을세우고 래년도예산에 계상하야 실현을 꾀하기로 되엿다 새계획에 의한 렬차는 『데겔엘렉드리』쿠선형렬차로 동경대판간 륙시간대판하관간 칠시간으로련락하고 조선철도국의 스피드·업」에 의하야 동경신경(新京)간을 삼십오시간

農村의疲弊로 乞食群激增

都市로多數모이고잇서

平壤署는數次逐放

【平壤】농촌의 몰경긔로 거지가 도시로집중하고잇서 평양시중에 다수방황하야 부민에게적지안은 곤난을늣기게한다하여평양서에서는 거지를 평양시가에서 내여쫏고저 전번에 제일회로 백수십명을몰어모아 구축한것은 긔보와갓거니와 십팔일 일은아침 다시제이회로 전시가에서 거지구십팔명을 몰아다가 취조후 원적지로 추방키로되엿다 동서에서는 평양시내에서거지가 한명도남지안키까지 제삼회、제사회계속적으로 거지를 검거추방키로 되엿다

카페에怪盜

십팔일오후한시부터세시사이에 시내인의동(仁義洞)일백이십이번지 광산업하는 림연만(林淵滿)은 시내 종로(鍾路)이정목에잇는 라원회관(樂園會館)에서 현금일백오십원과 저금통장기타등을 오백사십원어치를 도난당하엿는데 소관종로서(鍾路署)에서는 즉시각서에 수배하야 범인을수색한결과 동회관내에서무난하게범인을체포하엿다한다

치질엔 엥구루가제일이요

누구나물부하고 개개 치질이잇는 대여러해되 치질도수를 엣번이나하고 조약한약 상약별별치료를 ……

【약가】엥구루 …… (약은)경성신성당에주문하시오

기침·담·천식엔 엣치뻬-가제일이오

노소업시대개 기침을하는것인대 여러해되천식 해소천속으로 별별약을쓰고 별별치료를하여도 안낫던해소가 신발명한 엣치뻬를 ……

【약가】완고용三원 …… (약은)경성신성당으로주문하시요

부종·폐병·늑막염엔 나오뻬-가제일이오

폐병은 불치의 난병으로 일년에 사망자가 수십만명이되는데 ……

체증과속병엔 겡오-가제일이오

【약가】 …… (약은)경성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

만일 무슨 약이던지 이상한것시와 특이성의 체질(特異體質)로 병에 안맛거나 낫지안커나 현저한 효과가 업거든 곳 보내시오 청구하시는대로 허여드리겟습니다

京城西大門通町 本舖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그전신성당약국)

어찌하리까

새시감은잇스나 내나히가어리다

문 저는 금년 십구세되는 학생입니다 래년봄에졸업을하게되여 봉건만리 정로에 뜻을두고 동경으로 유학을가려고 준비중에 잇슴니다 그런데 요즈음 저에게는 커다란 고민하나이 생기게되엿슴니다

그것은 식골집에서 혼인하라는 곳 결혼을 하라는것 입니다 그런데 그대상되는 녀성은금년대구 모녀고보를 졸업한미인입니다 비록 서로 만나이야기는 하지못햇서도 지난방학때 그녀성을 우연히 보게되엿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녀성이 하도마음에 들엇기 때문에 곳 결혼 하고도 십프나 아즉도 스물의 고개를 넘지못한 그리고 장래 전문이상의학교를 마치려는 결심을 하고 잇는몸이니 지금결혼한다면장래조치안흘것갓사오니 어찌면 조흘까요? 그런데 지금제머리에는 어쩐일인지 그여성의일이 꿈속에 꼬틀파여올라서 잠수가 업나이다

답 공부를위한다면 결혼은주지가조타 (淸溪學生)

조선에는 조혼하는편습이예로부터 심햇기 때문에 아즉도 미성년자를 결혼식히려는 유풍이 만히 잇습니다 그리하기때문에 아마 당신도 그유풍을따러 속히 결혼식히려고 하는모양입니다 그러나 지금당신의 처지로써결혼하는것은 머장래를 위하야 조치못한 일입니다 웨냐하면 결혼을 한다는것은 벌서 어느정도의 수련과졸지나 한가정을위하 유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안정하려는 것이기때문에 수련과예인는당신은 결혼지안는것이 올흘줄 밋습니다

그러므로 공부할뜻이잇 다면 단연히 그결혼을 중지하시고 일층 공부에힘을 쓰십시오 지금 당신은 그여성의 어엽분얼굴이 인상 깁퍼 꿈속에도 품든히 잇처지지 안는다고하지만 이십전후의 청춘기에잇서서는 어떤여성이나 이쁘게 보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코동을가젓거든 사오년후에 결혼을 하십시요

家庭醫學

토질을예방하려면

문 당지는원래수토가불량한고로 외래자는토질(폐지스토마)에걸리기쉬운대 이병에방법을가르처주십시요 더우이저는위장이 약한대 음료수를 여하히처리하여야할까요 구체적으로 하교하야주십시요 (공포생)

답 당수(淡水)에잇는게, 붕어, 가재등의생것을먹지말고산에서나려오는찬물은반다시끄려마실것입니다 위장이약하다고 음료수의구별은 하실필요가업스나너머수분을만히마시는것은 적당치 안켓지요 (大邱府立醫院伊藤內科 朴某洙)

사람을부리는법

잘못이 잇슬때는 불평업시 꾸짓고 잘한일에는 생색이나게표창 대우는동기간처럼

물론 남에게 불니는것도 어려운일이지마는 또한편으로생각하면 남을부리는것도 결코쉬운일이아닌것입니다 하물며 일상 가족과동거하면서 가리잇는 안잠재기나 기타

부리는사람을

항상 유쾌하게 성의잇게 일을하도록하는것은 가정주부로서는 반드시 알어두지안어서는안되일의하나입니다 그러면 부리는사람을잘부리자면 엇더케하느냐하면 첫재 무엇보담도 야단을치지안어야하는것입니다 가령 일을잘못한다던지 눈치가빨르지못하다고해서 일일히 야단만친다면 집안만 시끄러울뿐만아니라 도리혀 반감을사서 눈압헤서는 식히는대로한다할지라도 결코충심으로서 주인의일을보아주지는 안는것입니다. 그뿐만아니라 하루종일

박게일을보고

드러온남편의신경이란 비록자그에게대한 불평이아닐지라도 불쾌한소리를듯는것은 결코조흔일이아닌것입니다. 그럼으로부리는사람에게 야단을심하게치면그것이도로혀 부부간에 불평으로변하는수도업지안는것입니다. 예선부터도 사람을부리는데는 은혜와 위엄이병행하여야한다는말이 잇는바와가티 만약 열가지의야단칠일이잇다면 일곱가지는 잘 알어듯도록타일으고 세가지만야단을치면 훨신더효과가잇는 것입니다. 가령말하자면 무엇을 잘못햇슬때

그것만가지고

야단을치지말고 먼저 자긔의지도한것이 바로되엿는가 안되엿는가를 반성해보아서 순한말로 타일르는것이좃습니다. 그리고만약 잘한일이잇다면 그것을드러서 칭찬해줄것도이저서는안되는 것입니다. 아모리남의집에서붓니는사람이라고하드래도 그사람도 모든사정이나 환경이조햇드면다 각각 제집에서 편안하게지낼사람인마큼 일을과히식히고나서는 반드시 그들의 괴로움것도 알어주어서 위안하는태도를 보혀야할것은 사람의인정으로서만그러한것이아니라 사람을부리는

방법으로서도

매우 효과가잇는것입니다. 그리고 책음에부리는사람을드릴때는 먼저 그사람의사정이라던지 성격같은것도 잘드러서 짐작을하고 그다음에는 이쪽사정도잘 이야기하여서 가령 가풍이어떠하다던지기타조석과 모든습관을 상세하게 이야기를해서 충분이 리해를하도록하고 오히려 길이들기까지는 주부되시는분이 당분간은조소데리고 견습식히는 것이조흡니다 꾸중보든 애를보는것도맛겨야할것인만큼 부리는사람의언어행동도 될수잇는대로 례의잇게하도록

교습을식혀야

합니다 웨그러냐하면 어린애란 감수성이빨러서 누구의뻔이던지 잘밧는것인데 늘 어린애를 보

船來話題

미국의소녀갱 일홈은「빈대단」

요즘미국에서는 소녀 들로서된 『갱』단이발견되여 모조리붓들렷는데 그갱단의일홈은「빈대단」이 조고마키는하지만 달려들면빈대처럼극성스럽고 따겁다는의미에서멘트일홈이랍니다. 경찰이취조한바에의하면 그단체의단장은열네살된 깜둥이(黑人)인데 단원은모다 엽서살로 부터 열네살까지의 어린애들 스물다섯명으로되엿고 보통의 비밀결사와가티 단원은서로비밀을 직히고단장의 명령에는 절대복종해야만되고 이단체에가입시험은 다음 자격에합격되여야된답니다

일, 호적한물자를 적어도오십척가량떠다밀수잇서야할일

일, 자동차타이아에 교묘하게못을박을줄알어야할일

일, 근처과자人집에가서 교묘하게 과자를훔처와야할일

그런데 이갱단이잡히게되단서는 근처과자집에서 과자를너무도저맛기때문에 경찰에호소한까닭이라고합니다

라듸오 娛樂

十九日 (金曜)

◇午後六時三〇分 七月에나온偉人이야기 가리발디,其他 金道泰

◇同六時五五分 常識講座 鑛石處理法에對하야(一) 金璿浩

◇同八時 農村講座 夏節農事(二) 京農敎諭 金雄珏

◇八時三〇分 農村振興릴레ー放送(其三)大邱(京城으로부터)

(一) 一等當選歌…元尙俊作詞 洪蘭坡作曲編曲 (二)二等當選歌…林湖作詞 李冕相作曲編曲 (三)三等當選歌…車輔重 作詞 李冕相作曲編曲

‖大邱部公會堂으로부터中繼伴奏 趙永傑 趙錦子 DK管絃團

◇八時四〇分 講演 慶北農村振興과婦人指導에對하야 慶尙北道囑託 任淑宰 講演 面民指導에對한體驗談 慶山郡押梁面長 朴炳來 一、農夫歌 二、慶北農村振興歌 達城慶州兩郡農夫

◇九時四〇分 레코ー드音樂

二十日 (土曜)

◇午後〇時五分 遊山歌外 一、遊山歌 二、제비가 三、小春香歌 四、寧邊歌 五、노래가락 姜山玉 黃菊花

◇同一時 衛生講座(二) 崔昌順

◇同六時三〇分 레코ー드音樂

◇同六時五〇分 兒童週間新聞

◇同七時 常識講座 鑛石處理法에對하야(二) 金璿浩

◇同八時 農村講座 夏節農事(三) 京農敎諭 金雄珏

海洋이야기의밤 ◇同八時三〇分 一、銀波 庾秋岡 二、迎日灣 申鼎言 三、 尹白南

二十一日 (日曜)

◇午後〇時五分 滿洲로부터音樂(哈爾濱으로부터)

◇同一時二〇分 俗曲 一、雨滴 二、羽調도도라 三、靑春歌 四、山念佛 五、방아타령 六、아리랑 奚琴 池龍九 洋琴 崔壽成 細笛 高載德

◇同六時三〇分 兒童劇 老人과 그딸 全一景 新興童人會(配役)어머니…金信福 玉禮(그의딸)…鄭慶雨 惠順(玉禮동무)…張慶順 林敬淑 信淑(玉禮동무)…張慶順 洞里老人…文叡 容植(老人의아들)…鄭龍得 容順(老人의딸)…韓利子 指揮 鄭英徹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話 申仁植

◇同八時 歌曲 一、羽調頭擧 二、羽樂 三、羽界樂 四、界樂 五、編 金春姬 金蘭珠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農村振興릴레ー放送(釜山)

◇同八時二五分 農村振興懸賞募集當選歌(京城으로부터) 一、(一等當選)…作詞…洪蘭坡作曲 二、(二等當選)…林湖作曲 三、(三等當選)…李冕相作曲

‖車輔重作詞…同 權永傑 趙錦子 伴奏、DK管絃團

◇同八時三五分 講演‖釜山公會堂으로부터‖慶尙南道產業部長 朱榮煥 講演‖同‖同昌寧郡高岩面長 盧泳奐 우리部落의更生 (一) 移秧歌 (二) 夕陽歌 (東萊郡)尹順心 裵湖植 (唱)…(三) 農夫歌…崔琴香 申琴香

曆

七月二十日 (土) 舊六月(癸未)(小)二十日 丁酉·火·柳·滿

●祭祀에宜함

▲小暑 八日(舊六月初八日)

▲初伏 十三日(舊六月十三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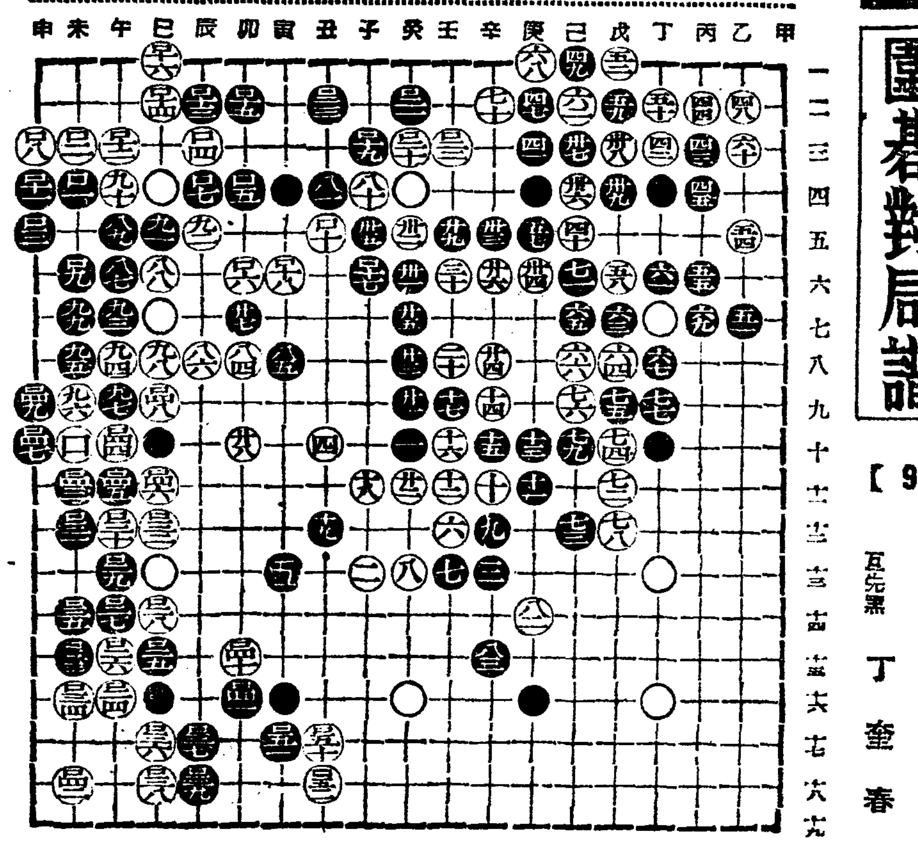
▲中伏 廿三日(舊六月廿三日)

▲大暑 廿四日(舊六月廿四日)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9】

白 閔仲植

互先黑 丁奎春



◇秦極文氏評

黑이 午의 十四로 內隱함으로 黑片角을 白에게 提供하고 白이 先次丑의 十七로 黑을 도로 脅迫하니 黑의 危機가 眉睫에 臨한지라 이로써 보건댄 一失元位면 勢不得挽回난 理固然矣로다 來頭進展方法은 不可不精研이니 其於壁上觀者 企待遑遑에何오

短篇小說 만무방 (4)

金裕貞 作 安碩柱 畵

지금까지 논의 벼가 서 잇다면 그것은 성한사람의짓이라 안할것이다.

응오는 응고개 논의 벼를여태 비지안햇다。물론 응오가 비여야 할것이나 누가 둡든지그 형용질이를 먼저 익섬하리라。그럼 여기에 따르든 모든 책임을 응칠이가 혼자 지지 안흐면안될것이다。

응오는 진실한 농군이엇다。나히 설흔하나로 무던히 천냥다 하고 동리에서 처주는 모범청년이엇다。 그런데 벼를비지안는다。 남은 다들거더드렷고 털기까지 하련만 그는 빌 생각조차 안는것이다。

지주라든 흑은 그에게 장리를 노흔김참판이든 뺏질 하자와 벼를 비라 독촉하엿다。

『얼른 털어서 넘긔 내야지』

하면 그대답은

『거심이 죽게됏는데 베는 다 뭐지유ー!』

하고 한갓가리 내뱃는 소리뿐이엇다。

하기는 응오의 안해가 지금 기지사경이매 틀은 업섯다 하드라도 돈이 놉아서 약을 못쓰는 이판이니 진지 벼라도털어야 할것이다。

그러면 왜 안 털엇는가—

그것은 작년 응오와 가치지주 문전에서 타작을 하든 친구라면 뭇지는 안흐리라。한해동안 애를 조리며 흙자식 모양으로 알뜰이 가꾸든 그 벼를 거더드림은 기쁨에 틀림업섯다。 꼭뚜새벽부터엿、엿、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칼칼하도록 덜고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장리쌀을 제하고、색초를 제하고보니 남은것은 등줄기를흐르는 식은 땀이 잇슬따름。그것은 슬프다 하니보다 끗업시 부끄러웟다。 가치 털어주든 동무들이 뺀히 보고섯는데 빈지게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건 진정 열쩍기 짝이업는 노릇이엇다。 참다 참다 응오는눈에 눈물이。 흘리든것이다。

가뭇한데 엽치고 덥치더라고 올에는 고나마 흉작이엇다。 샛바람과 비에 벼는 깨깨 배틀렷다。 이놈을 가을하다간 먹을게 남지 안흥은 틀림이요 빗도 다 못가릴모양。 에라 빌어먹을것 너들끼리 캐다 먹던마던멋대로 하여라、하고 내던저두지 안흘수업다。 벼를 거덧다고 말만 나면 빗쟁이들은 우ー 몰려들거니깐—

응칠이의 최몽은 여기에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구구루 가만만 잇섯드면 조흔걸 이 사품에 뛰어들어 지주의 빵을제법 갈긴것이 응칠이엇다。

처음에야 그럽 작정이 아니엇다。그는 여러곳 물을 마신이만치 어지간히 속이 틔 거달이엇다。 지주를 만나 까놋코썩 조흔 소리로 의론하엿다。 응오사는 밧실이니 도지도 좀감해주는게 어떠냐고。 그러나 지주는암말업시 고개를 모로흔들엇다。 정 이러면 하여튼 일년품은빼야할테니 나는 그눈에다 불을 질르겟수、하여도 잠잣고 웅치 안는다。 지주로 보면 자기로도 그벼는녀허거더 드릴수는 잇다。 마는 한번버릇을 잘못해노흐면 어느작인까지 행실을 버릴가 엽녀하야 것흐로도촉 마하고 잇는터이엇다。실상이야 고까진 벼쯤 잇서도고만 업서도 고만ー그 섬보를 눈치채고 응칠이는 화를 벌컥냇것마는 조호나 저도 모르고 대뜸주먹빵이 들어갈것이다。

이러케 문재중에 잇는 벼인데 귀신의노릇가튼 변괴가 생겻다。 다시말하면 벼가 업서젓다。 그것두 병들어 쓰러진 쪽쟁이는 제처노코 무얼루 그랫는지 알장이삭만 따갓다。 그면적으로 어림하면아마 못돼도한 대말가량은 될는지ー

응칠이가야출 일속이 그는께로 노넝자 이걸발견하고 기가 막혓다。 누굴 성가시게 굴라구 그러는지。 산속에 파뭇친 논이라 아즉은 본사람이업는 모양갓다。 허나 동리에 이소문이퍼지기만하면저는어느모로던 혐의를바더페는 조히입어야될것이다

응칠이는 송이도 송이려니와 실상은 궁리에 바뻣다。 송중으로 지목 갈만한 놈을 여럿을 어보앗으나 이럿다 짐죽마한 증거가 업다。 어쩌면 재성이나 셩팔이 이 둘중의 즛이리라、하고 결국 이럿게 생각은것도홍칠이가 아니면 안될것이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낫다。

응칠이는 저의 짐작이 틀어마즘을 알고 당장에 입을 낼듯이 서뎝이의 눈을 드리노렷다。

旅行의 伴侶者는 이 한瓶

먹혀지지안코 입맛에 맛지안는때에 調理하야 맛나게 잡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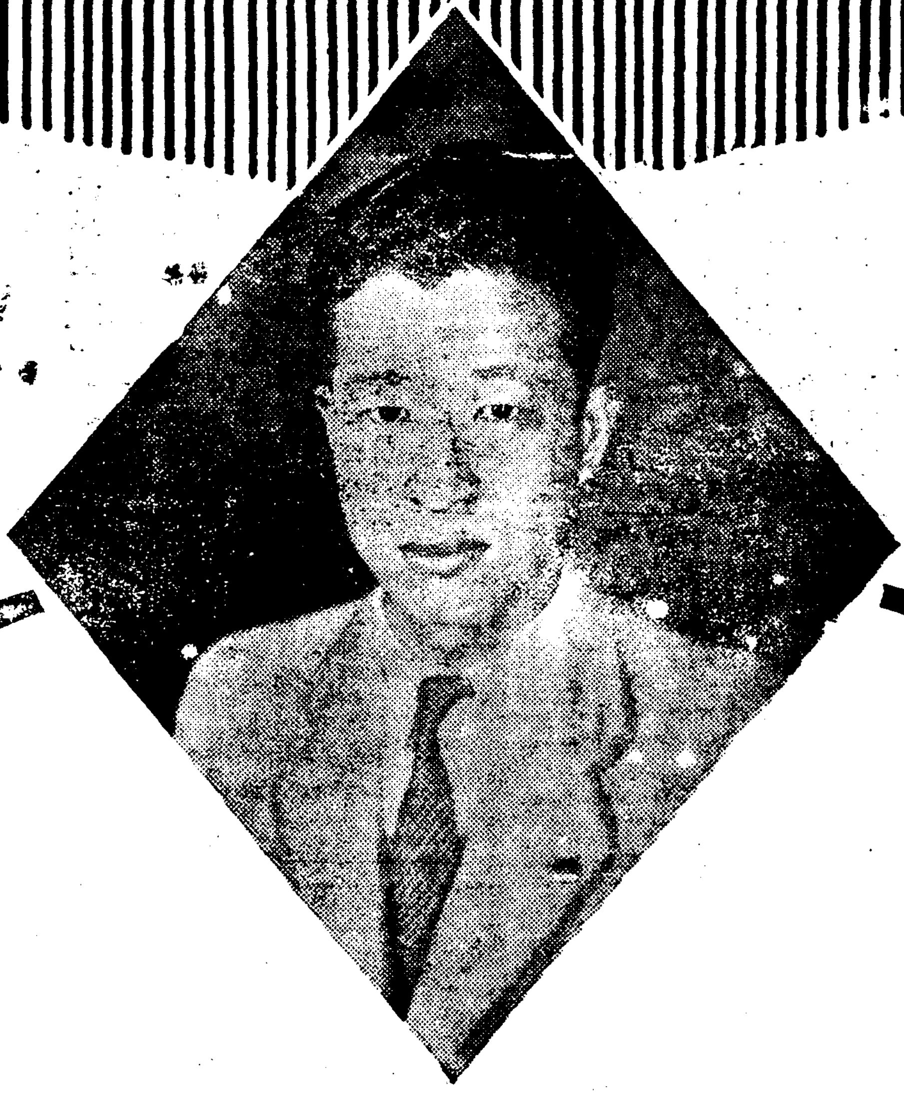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家庭에는 德用罐을 携帶에는 便利한瓶入을

宮內省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祝朝鮮日報社新築落成記念



社長 趙 俊 鎬

營業科目

一. 有價證券淸算取引　一. 有價證券現物賣買
一. 株式募集引受取扱　一. 有價證券擔保金融
朝鮮取引所證券取引員　有價證券現物問屋

東亞證券株式會社

京城府黃金町二丁目一九九番

電話本局 短期部 長 四四三一番 四六四六番 四六二五番　現物部 長 四一四六番 四六一九番 四六四二番

電信略號ケイゼウ・トウアセウケン　振替口座京城九三四二番

各種理髮器具　理髮用椅子
鏡 各 種　內外國安全剃刀
西洋剃刀　歐米式消毒器
美容具結髮用具　各種化粧品
直輸入都散賣

東亞理髮器具株式會社

朝鮮京城府鍾路二丁目八七番地

電話長光化門二二三番
振替口座京城一九八八五番
電略『등』리『又』ト』リ』

內外國物產取引　一般物產委托賣買
不動產委托管理　動產不動產擔保貸付

東亞商事株式會社

京城府鍾路二丁目八十七番地

電話光化門二二二番・振替京城一七五二〇番

忠南保寧郡熊川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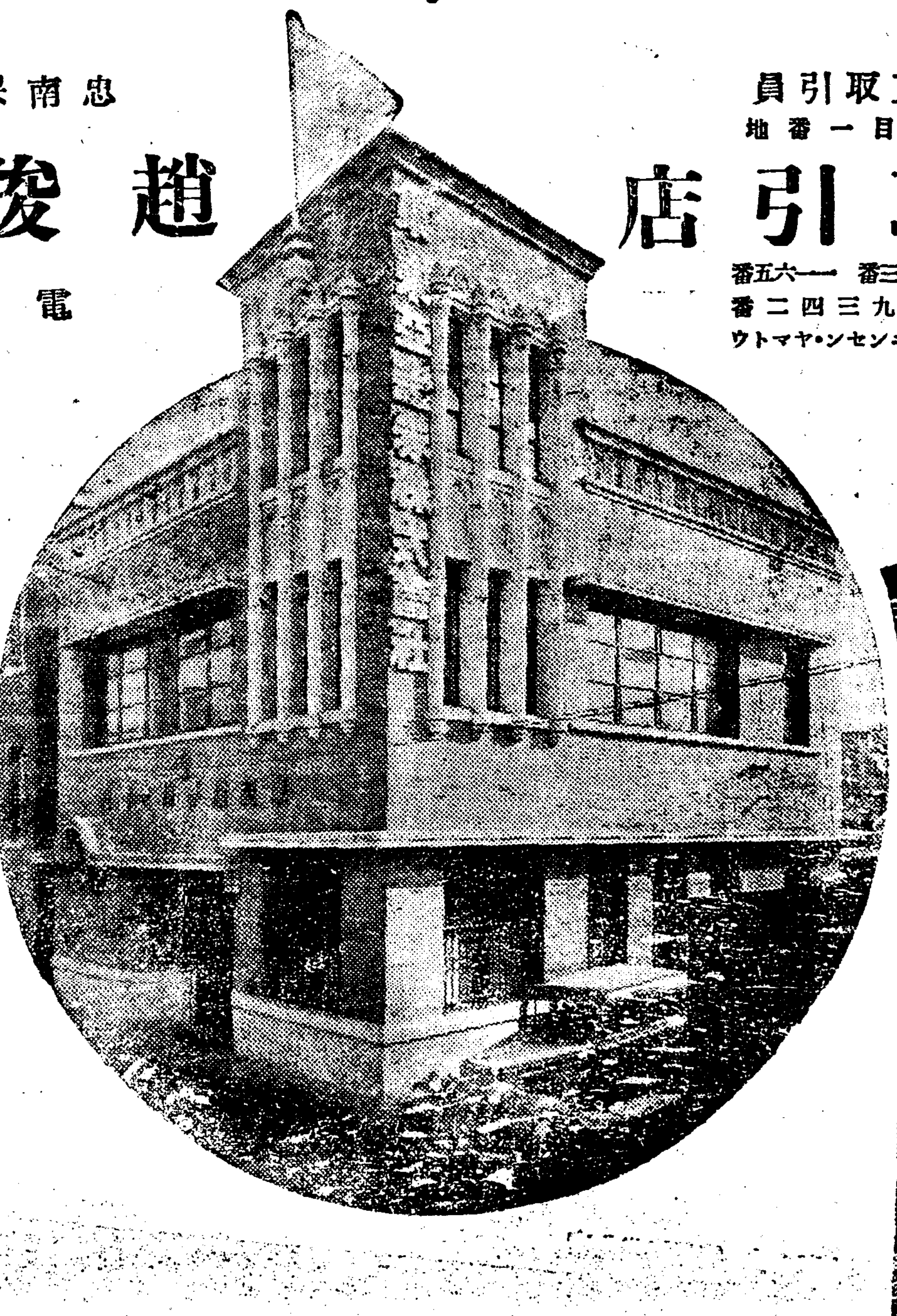
趙俊鎬農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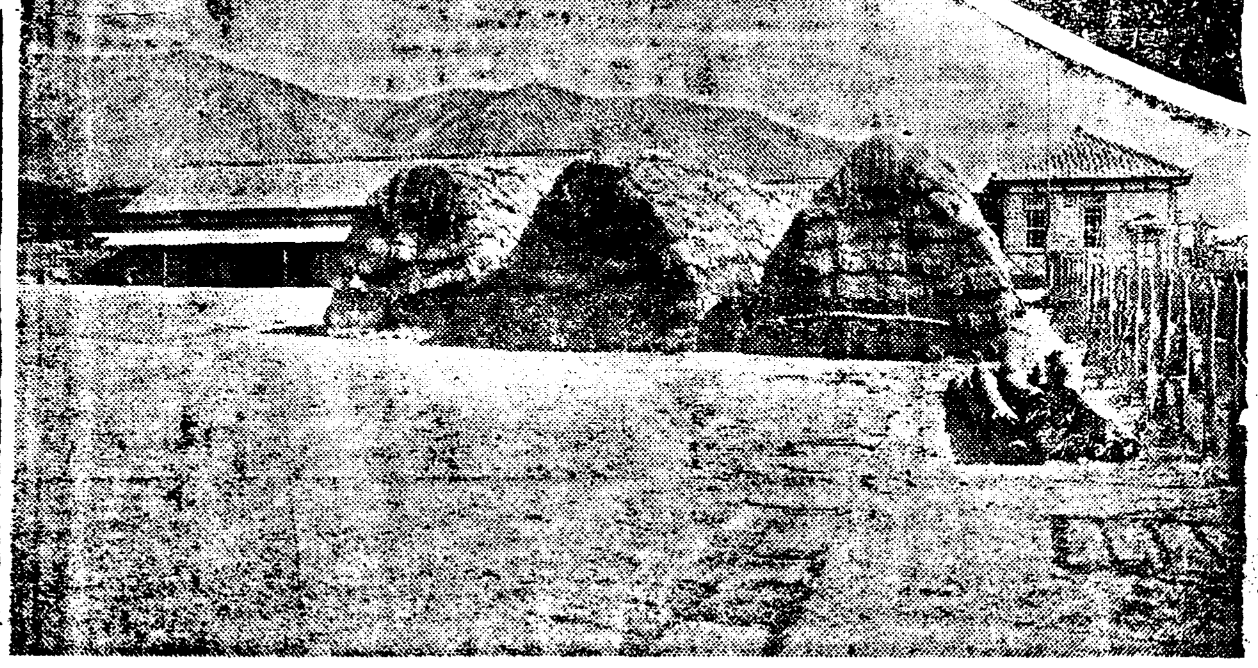
電話五番

朝鮮取引所米豆取引員
仁川府海岸町三丁目一番地

趙俊鎬取引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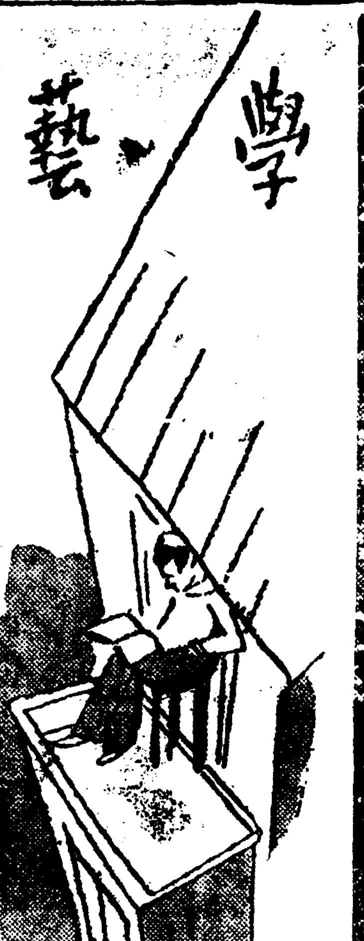
電話 長九一六番 六九三番 一一六五番
振替口座京城九三四二番
電略 發信 ヤマ(又ハ)ト・受信ニンセン・ヤマトウ





不夜城

學藝



諷刺文學論【四】
文壇危機의一打開策으로서
崔載瑞

以上批評的態度에關하야 내가말한바에 過히틀림이업다면 主로 그態度를表現하는 諷刺文學이 時代에適合할것은 自然히推測될것이다

「作家」가 積極的으로 時代를 統一할수업는以上 消極的으로나마 人心의 機微를捕捉하라면 그는이態度外에取할아모런態度도發見치못할것이다 그리고眞正한諷刺文學은 사람을嘲하면서도 讀者에게 그다지不愉快한感情을주지안는다。『諷刺는一種의 瑕疵가든것이여서 讀者는 거기서 自己를 [illegible]아노코는 모든사람을본다고』쓰위프트는말하얏다。古來로 만흔諷刺作家는 이性質을利用하야그時代의

「罪惡」을正面으로부터 攻擊치안코 側面 或은裏面으로부터攻擊하얏다。그것은 사람을 놀낼만한痛快味는업슬망정 오히려 사람을 氣樂식히는만한辛辣味와深刻味가잇다。英國의쓰위프트 佛蘭西의볼테엘 獨逸의하이네等의作品이이것을 잘實證하고잇다。이리하야諷刺文學은 現代作家에게 比較的容易하고도 效果的인戰術을約束하는듯십다。

그러나諷刺文學은 現代作家에게만有望함을約束한다고는 생각되지안는다。現代讀者에게對하야더욱魅力잇는約束을하야주는것갓다 現代人의

「心理」를 진지하게檢討해볼때 리고인는 共通的特色은 人生에對한失望 그리고거기에서생겨나는 虛無感과無慣病感이다。그들의大部分은 겨우겨우生存하야나아가는外엔아모런希望도갓지못하얏다。그러나이것이決코眞正한意味에잇서서의希望이안이다 또하지안는生存을그래도繼續하라고 속는줄알고속아지내는自己自身에 더욱더욱絶望을 일으키게하는 失望의콘트라스트(裝飾的對照)이다 이가튼

「絶望」가운데서 現代人은무릇 두가지길을取할수잇다。하나는 憂鬱의길로 또하나는諷刺의길로 絶望에서憂鬱로 通하는길가티 容易하고 甘味한것은업다。그러나萬一에그가 現代的理智를가지고잇다면 그는그것이얼마나 무서운[illegible]의길인가를 알것이다。그것은스스로 理智의權利를拋棄하야 自己스스로 催眠術에걸리는愚昧인까닭이다。이리하야 그는니를물고 諷刺의길로 드러갈것이다。이것은消極的이나마 一種의 復讐이다。

「人生」에모든것을 어버렷다 할지라도 그가萬一에그失望을 解剖하야 그虛無를嘲弄하고 아울러 그無價値를 冷笑할理智力을가젓다면 그는 아직도 그自身의主人이라고할것이다。現代人은 이理智力의 所有者가 되기를 渴望한다。諷刺文學이 現代의時代에適合한理由의太半은 여기에잇다 또한가지理由는 人生에對한諷刺가 現代人에게 움즐일수업는實在感을주는點이다。浪漫時代에잇서 사람들은 人生讚美가운데에 實在性을發見하얏다。그것은 人類進步를信仰하엿기때문이다。

「人間」의本性은 착하고 또 個性은 無限한發展의 可能性을가지고잇다。따라서 妨害가되는外部의모든制度만改革한다면 人間은드듸여 神의城에到達하리라! 이것이前世紀人의 움즐일수업는 信仰이엇다。따라서 그들에게잇서 實在性은 不完全으로부터完全으로進步하야가는 向上가운데에잇섯다。그러므로 個性의美와 偉大를表現한것이면 그들에게는 무엇이나 眞實한藝術이엇다。

「自己」라는 不完全할지라도 完全한人物가운데에 自己自身의明日의姿態를보앗다。그들은 詩人과天才와英雄을 崇拜하얏다。

그러나 이詩人과 天才와 英雄들은 人類에게 무엇을 끼처주엇느냐? 神의胎를 품엇다고 보히든人間個性은 結局地上에무엇을나아노앗느냐? 이것은現代人이避할수업는 괴로운質問이다 그리고 그들은 뻴레엘의警句가운데서 그解答을求한다——『이世上이 地獄이안이라면 나는地獄을想像할수업다』따라서 現代人은 前世紀人과

「反對」로 個性崩倒가운데에 內在性을發見한다 自己가 비록 現在에比較的完全하다할지라도 明日의自己는 더욱不完全하야질것이다 그래서 不完全個性의出現은 明日의世界를 暗示하야준다 實在性을준다 人生讚美는 九十度로轉換하야 人生崩倒로 變하얏다 이곳에 諷刺文學의舞臺가 到來한것이다

諷刺라는文學形式이 現代에생겨난것은안인지라 그

「內容」에도 人類文化史와 거의併行하는 變遷이잇섯다 個人攻擊의低級한諷刺로부터 時代의政治的權力을批判하는 所謂政治的諷刺를거처 人類全體를 嘲笑하는高級한諷刺에 이르기까지 만흔階段이 잇다 그러나 作家가 作家自身을 解剖하고 批評하고 嘲笑하고 叱咤하고 辱說하는 自己諷刺는 일즉보지못하든 藝術形式이다。나는이가튼 새로운文學을 이스와 에리옷트와 헉스레이가운데서發見한다。

夏日雜草
職業、愛情、其他 ―C君에의回信―(4)
蔡萬植

○君

다음에 君은 職業을 求하러 서울로 오겟다고 햇지오? 망녕의 생각이오

君은 서울로 올라오면 엇자리 新聞社나 雜誌社에 入社할수가잇고 그리하야 文學에의精進을 할수잇스리라고 밋고잇는 눈치오 그러나 서울와서 新聞社에 採用되기란 옛날 감찰사한자리 어더하기보다도 더어렵소 난다긴다하는군들이 [illegible]어 잡비젓는데 겨우 君쯤으로 어림도 업는 생각이오

雜誌社는 밥을 먹여줄만한곳도엇스니더구나 말할것도못되오 또 新聞記者가 文學立身의登龍門인줄이나 알고잇는것이 地方文學靑年들의 一般으로 품고잇는 생각인데 新聞記者는 文學하기어렵소 시골 그대로잇스오 시골잇스라하고 요지음 社會의 指導人들이 독개비부작처럼 걸려하면 풀고나서는『歸農』을 勸하는아니오 시골서도 먹고살길이 업다면 서울와도 마찬가지오 생활 못할것거든 金鑛을하나 發見하오

허랑한소리라고?

글세 좀 허랑한 소리일른지는 모르겟소나、君이 金鑛을하다가 失敗해서 무엇 밋질것잇소? 失敗해서 밋질것업슬바에야 失敗할셈치고 해보구려 해보아서 多幸히 을바루 하나만 드려마즈면 君은 黃金방석에올라안즐수가、잇지안소?

나는 君이 서울와서 就職을 한다는것보다도 도리어 그것이 [illegible]하 [illegible]性이 잇서보이오

◇

○君

[illegible]女氏가 君을 바리엿다고? 말하자면 失戀을 한모양이구려?

[illegible]이지오。

『내가 그를 그대도록 귀여햇고 그도나를 [illegible]心으로 따릿섯는데 그리고 [illegible]치아니할수 斤무게의 언약이 잇섯는데그러케도 엇사리 도라서바리다니 도모지 모를일』

그러나 C君

[illegible]를 [illegible]스트로 녁이고 그것을 結婚의 準備行爲로 잇고 그리고 [illegible]女氏가 君에게 한말을 今[illegible] 眞이라고 미든君은그것만보더래도 當世人的生活圈內에 드러설 資格이업소

연애는 [illegible]스트가아니라 연애는 께임이오 그리고 結婚은本能의命令이고 生殖은 그副産物이오 하나도 君이 생각하는대로 그러케 嚴肅한것이 아니오 眞一 眞實한연애와 嚴肅한結婚의[illegible]가잇다면 그것은 太古적[illegible]이 現代에 [illegible]된 例外的[illegible]實이겟지오。

◇

[illegible]하는 男女끼리의 언약은 [illegible]과 다를것이업소 어느편에서든지 수틀리면 그것을[illegible]棄하되 다른한편이 어쩌할 [illegible]가 업는것이니까——

◇

가령 아모리 사랑하는사이라고하더래도 利害가 틀리면 그들은 相對便의 [illegible]를 밟고넘어서면서라도 自己의利益을 [illegible]하기를 끄리어하지아니하는것이 當世男女의 [illegible]이오

◇

내 봇그려운 經驗을하나 이약이하리다

前에(十年이나 되엇다고 나는구지에 附記하오) 나의 戀女氏는손가락을 찌저서 내게 永遠토록變치아니할 맹세로 血書를 써주엇소—새빨간 피로마음心字를—

이러케 손가락을 찌저 血書할 정도이엇스니 두사이가 어떠햇스리랑은君의推測에맛기오。

키가큰세아들
로ー드、던세이니作　金珖燮譯

끗내 人間은 그文化의最後의光榮을 頂上에達한 그市街의빛奏한殿堂을 놉히 建築하엿다。

밝읏 大地의아래서는 人間의모든要求를 充足해주는機械가 柔한 音響으로 굴굴하고이섯다。이제人間은 그以上더 勞力할必要가업섯다。그들은 거기에平히 안저서『性問題』를論하고이섯다。

때로는 悲慘하게 荒廢된野原으로부터 흉상한老婆가그들의밧가에어구 人間最後의먼ー城堺에 빌면서 차저왓다。그들은 恒常 그女子를 그냥 돌여보냇다。人間이 成就해논 그光榮 그市街는 그女子의것은아니엇다。그들이 恒常 돌여보낸 野原에서 그러케 빌며온것은『自然』이엇다。

그리하야 그老婆는 다시 自己의野原으로 홀로 도라가는것이엇다。

하로는 그老婆가 다시왓다。그러자 그들은 또다시 그를쫏차보내다。그러나 그때는 키가큰 세아들까지따러왓다。그女子는 말햇다。

『이것들이나 드려보내자。그대들의市街에다가 이런아들들일지언정』그래서 키가큰세아들이 들어갓다。

이것이 自然의아들 버리운者의 무서운아들이니 곳『戰爭』과『饑饉』과『疫病』이엇다。

그러타。그들이 거기 들어가니 뜻밧게『人間』은 文化라는 것에 사로잡혀 市街에서 自己네의『問題』에만 沒頭하야 뒤에서 그들셋이 걸어오는 발자취소리란 도모지 듯지못하고 잇섯다。

마을의遺話 (六)
白石

한달이 걸려서 녕감의 상처는 겨우아물엇다。

땅우에는 한울알에는 어데들로부터인지 새라새세상들이 차저와서 머물대로 머물려들엇다。즐거운 빗갈을가진 세상이 어떤 무리의 사람들에게오고 슯흔빗갈을가진세상이 다른무리의 사람들에게 온것이다。그것은 시절이라는것과 가티오고 그것은 인생의 생사라는것과 압서거니 뒤서거니와서 그것은 사람들을 행복에대어노코 행복속에 깁히모라노코、사람들을 불행속에 깁히몰아넛는것이다。세상은생명의즐거옴을 가지고생명의 괴로움을 가지고저를찾는사람이나 안찻는사람이나 매한가지로 그들을 차저온것이다。새세상이 올때 사람들은 경사로운 큰일을맛은사람들이라 그들을보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한숨지우며 설거워하는것이다 위안과 히열과 히망에싸혀서。그러나 사람들은 또 상서롭지못한 일을 당한사람들이라 그들을보고 푸념하고 한숨지우며 설거워하는것이다 근심과 비애와 절망에싸혀서。

상처가 아물은 녕감에게 그리고 로파에게도 어떤 새세상이 차저오듯하엿다。울힘도 한숨쉬일맥도 업는 녕감과 로파에게 생명의괴로움을가지고 새세상이 차저온것은 분명하엿다。

밀고 헤치고 넘어치고 타고넘고 따려뉘이고 얼려보내고올래 피해달어나고……수만흔 새세상을 그것은 생명의 괴로움만을 가지고오는 새세상들 그들은 이러케 떼여벌이고 온것이엇다。

온곳 모든사람들에게는 시절을따려온새세상이 차저왓다。그것은、아름답고 따뜻하고 부드러운세상은 사람들을 반겨맛고 다정하니 껴안고 알뜰하니 잔등을뚜드리며 살틀하니 이야기하는것이엇다。

그것은 그부드러운손을들어손질을하고 그온순한 눈을가지고 눈짓을하고 그것은 맑고 고은 노래를부르고 몸매+게춤을추고 꿈을룰으는 우슴을 웃는것이엇다。세상의온곳 녕감을 내노흔 모든사람들에게 차저온새세상은 이러하엿다。세상의 어느한귀、모든사람들을 내노흔 녕감에게는 어늬 거지를 떨어가다 벌이고온 세상이、어늬 죽엄한데 쫏겨오는 세상이 차저온것이엇다。

◦아니그것은 어늬 거지를죽엄까지 쫏차보내고 오는세상인이런말을 박구게하기도 하엿다—

아츰녕감이 바아지를들고 일어서는기색을 채인로파가 에구、그러케 허리、허리 압흐대면서 또어떠케 가갓노하면 그때에는 녕감이 눈은왜 멀엇노 할미눈만아멀어서두 이르킨갓디기리 하기도 저녁것이되어 로파가 봇두막을 어리씁어귀나간 웅추리를 차저들고 울길러 나가는것을본 녕감이 가만잇스라구내퍼오게 하고 일어서며 압흔 와못봐가지구그르노 하고 웅수리를 빼틀어들면 허리나 좀 쉬디 수라구하고 로파는 돌아서서 부어문을 찻기도하는것이엇다。

새세상、그것은 더항녕감과저척로파의 양아들 양며누리가두늙은이를 벌이고 밤중에 도망을 해벌인것이엇다。새세상、그것은 해끌가튼 녕감이 비애와 절망의 집팽이를 압세우고 식컨언숙엄의 그림자를 뒤에끌고 밥을어드려가게한것이엇다。새세상、그것은 해끌가튼로파가 비애와 절망의집팽이를 머리마테 세우고 식컨언그림자를깔고 눕게한것이엇다。

새세상이 녕감로파에게 온뒤로 이산골의물과 바위와 물속의 가제와 산새와 닭개슴생과 숩풀과 나무와 낫한울의 해와 밤한울의별들은 가난하고 외롭고 늙어병신이된 이두들상한생령을 무서워하고 경계하는듯하엿다。그것은 얼마아니하야 이두생령이 무덤업는 귀신이될것을 알은탓이인지도 몰랏다。

古建物巡禮 (8)
風化의源이든 文廟
湖岩

昌慶苑北門外 風致조키로有名한 現崇三洞에는 孔子를 奉祀하는 文廟가 잇스니 一名은成均館이라한다 太祖七年戊寅(一三九八)에 創建한바 그後얼마아니되어 定宗때에 불타버리고太宗때에 重建하엿드니

壬辰兵火에 아주燒失되여

宣祖三十五年으로부터 同三十九年(一六〇六)에이르러 기까지 또다시 重建한것이 곳 現成均館의 建物이다 이로보면 現成均館의 年齡도 三百三十年이 넘지못한것을 알것이다 오늘날까지 蒼然한古色을 띄고、옷숙하게 서서잇는 廟庭碑를 읽으면 成均館의由來를 明白히 看取할것이니 同碑에 依하건대 太宗이 重建할때 春亭卞季良의撰한廟庭碑가잇섯는데 壬亂에 成均館이랄 때한가지로 焚劫을 當하게된바宣祖때 成均館을 重建하면서도 그

廟庭碑만은 미처竪立하지못햇드니

그後仁祖께서 成均館의歷史가 湮滅될가 念慮하야同王丙寅年에 또다시廟庭碑를 세우게 할새 녯날卞季良의 碑文을 그대로 삭이게 하엿는데그 碑文을 改書한이는 當時名筆이든 梨川 李弘胄요 篆額을 쓴이는 後年丙子의 江都陷落때 殉國한 仙源 金尙容이요 碑陰을 적은이는 一代文章인 月沙李廷龜이다。儒敎로 立國한 漢陽朝에서는 이成均館으로써 風化의源泉을삼앗스니 보라 孔子祭日에는 上監이

擧動하서서 獻酌을行하

섯고 혹은 明倫堂에 親臨하사 講論을하시기도 햇스며 王子가 入學年齡에達하면 반드시 成均館에 나가鄭重하게 入學禮를擧行하섯다 成均館에 잇는太學生의 定員은 二百名이엿스나그네들의勢力에 잇서서는 대단햇스니 한번 들고일어나 諫하게되면 上監이라도 그네들의 뜻을 억이지 못햇다 成均館은 文廟이자 大學이니 오늘날 말로는 文部省의直轄하는 官立大學이요 그他東、西、南、中의 四學은 역시 首府에잇는 官立學校이며 各道의文廟即鄕校는 地方公立學校이엿는데 이들이

當時文敎의 機關으로서

重大한所任을 마타보게된바勿論 書院과 書堂가튼 私立學校가 업는바 아니엇스되 中央政府와 地方官廳이 特設한敎育機關은 首府에는 成均館을 最高로하야 그次에 四學이잇고 地方에는 鄕校가 잇슬뿐이다 그 建物의制도 成均館과 鄕校가 꼭 가탓스니 지금 成均館을 例證으로 들진대 構內의正殿은 孔子의 位版을 모신 大成殿이요 그리고、經學을 講論하는 明倫堂이 잇고 東西齋라하야 儒生의 居所가잇섯는데 이것은

地方鄕校도 마찬가지로

大成殿을 비롯하야 明倫堂과 東西兩齋가 잇섯다 文廟에는 大成殿 中央에 南面하야 大聖孔子를 主享으로하고 東西兩側에는 顏曾思孟四聖을 비롯하야 孔子弟子 十哲과 宋代六賢을 配享하며 東西兩廡에는 多數한漢土名賢과 東國名賢을 配享하는데 東國名賢으로 말하면 新羅의薛弘儒聰、崔文昌致遠과 高麗의安文成裕、鄭文忠夢周와漢陽朝의金寒喧宏弼、鄭一蠹汝昌、趙靜庵光祖、李晦齋彦迪、李退溪滉等五賢과 李栗谷珥、成牛溪渾

金沙溪長生 宋尤庵時烈

宋同春浚吉、朴玄石世采、趙重峰憲、金愼齋集을 合하야十七분이다 이를볼진대 新羅高麗에는名賢이 각기 둘씩에不過하나 漢陽朝에는 十三名賢이 輩出하엿스니 儒敎隆盛의 特徵이 여기서 가장 잘 나타낫다 五百年동안 先聖先賢을 奉祀하는風化의 淵源이요 幾多人材를 培養하든 國學의最高府로서의 成均館은 時異勢變한 오늘날에와서도 依然히 經學院이 되어잇슴을 볼때 실로 今昔의感이 깁다。

新刊紹介

丁

▲月刊野談 第十號 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八 癸酉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 一八二一番 定價二十錢 送料一錢

▲天國福音 七月號 慶南東萊郡龜浦面龜浦里四三〇 天國福音社發行 振替釜山七六六九番 定價五錢

黑風 (80)
韓龍雲作　金[illegible]超 畵

초연 (4)

『꼼난이가 무슨리유로 고향과 성명을 말하지 안컷지 그것을 구테여 알고저 하는것은 우수운일이다 사랑이라는것은 쓸데업는 조건을 부치는것은 아닐것이다』

생각을 이러케 단순하게 돌니는 왕한은 자기의 감정이 꼼난에게 사로잡힌것을 깨닷지 못하얏다

어느날 왕한은 꼼난을 차저갓다

꼼난의 처소는 검소하고 깨끗하얏다 의례히 노혀잇슬만한것이 노혀잇슬뿐이오 특별히 다른것은 업섯다 책상에는 교과서 이외에 음악에대한책과 그림에대한책이 몃권 노혀잇고 조그마한 피아노와 약간의 화장구가 잇는외에 화초 두어분이 잇슬뿐이엇다 꼼난은 왕한을 친정으로 반갑게 마저준다

『선생님이 어떠케 이러한 누추한곳을 차저오섯서요』

『회사(回謝)를 진즉 한다는것이 이러케 느젓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러한등 인사의말이 끗난뒤에

『조금 실례하겟습니다』

하고 나가는 꼼난은 손쉬웁게 다과를차리려다가 은근히 왕한에게 권한다

왕한은 차를 마시는것 보다 정(情)을 마시는것이 만하얏고 찻자를 축이는것보다 회포를축이는것이 만하얏다

『객지에 괴로운일이 만하시지오』

하고 왕한은 무럿다

『공부하기에 골몰하야서 괴로운지 엇전지 모르고 지냄답니다』

『공부는 무어에 취미를 부치십니까』

『특별히 취미를 가지는것도업습니다 그저 모르는것을 아라가는것이 재미잇습니다』

『아마음악에 취미를 가지시는군요』

하는 왕한은 피아노를 도라본다

『아니야요 음악에 취미가 다 무어야요 남들이 하기에 나도 하야볼까하고 피아노를하나 사다노앗더니 되지가 아니하야요 『헤서 남이 보는 때에는 부끄러워서 하야보지 못하고 이따금 혼자만 타본답니다』

하고 꼼난은 우스면서 조금 부끄러운듯이 말하얏다

『그러면 오날은 내가보는대한번 타보시지오 그러면 차차 파겁이 되실것입니다』

『애구 못해요 부끄러운대 공연히 그러시네』

하는 꼼난은 눈을드려서 왕한의얼굴을 보는듯하더니 다시 머리를 숙이고 몸을 조금도라 안는다

『그림에도 취미를 가지서요? 하여간 예술방면에 취미를만히 가지시는군요』

『아니야요 아니라는대 자꾸만 그러시네 그림책은 구경하너라고 사다노앗서요』

하는 꼼난은 말을 계속하야 혼잣말 비슷하게

『인제 피아노하고 그림책하고 모다 감추어버릴걸』

하고 잠간 눈을드러서 왕한의얼굴을 보더니 다시 눈을돌녀서 피아노와 그림책을 본다

그리하더니 그림책을 다른책뭇헤다 너허서 뵈이지안토록 다듬거리고 피아노를 등지고 안즈면서 두팔을 버려서 피아노를 가리는모양을 하면서 왕한을보고 웃는듯도 하고 성내는듯도 하얏다

순진하고 어린듯한 꼼난의 태도는 끗업시 어엽부고 사랑스럽게 뵈얏다

『취미라는것은 조금만 조아하야도 취미입니다 밥뭇이 전문적으로 잘하는것만이 취미가 아니겟지오 그러나그말슴은 고만두고 주의는 무슨주의를 조아하십니까』

『저는 아모주의도 몰라요 구식가정에서 자라나서 어려서는 부모를 의지하고 시집가면 남편을 의지한다는것 바게는 아모주의도 모릅니다』

왕한은 꼼난의 『시집가면』하는말을 긔회삼엇다

『시집갈곳을 하시니 말이지결혼하셧서요』

『결혼이 무어야요 나이 열여덜에 아직 어린애인데 어느새 결혼이 다 무어야요』하는 꼼난은 부끄럼을 아기지못하는듯이 두빰이 붉거젓다

酷暑警戒

梅毒은如何히하면速히 病因을根絶할가

患者가特히苦悶하는問題
左記의悲痛한書簡을보라

花柳病처럼憂鬱한病은업다。憂鬱할뿐만안이라、神經이가장銳敏하여진다。病에잇서、神經銳敏이란것은、決코조흔效果가안이다。더군다나梅毒과가튼것은、조곰이라도菌毒이體內에潛伏되면、그、神經이銳敏하여、더욱病勢를惡化케할뿐이외다。實際로梅毒이라는것은、一見根治된것갓드라도、實際엔그裏側까지侵犯하여、人生을暗澹케한다。

다음書簡은

最近、一梅毒患者로부터本社에보낸悲痛한書簡의一端인바、同病에苦痛받는여러분들을爲하여、特히轉載한다。

(前略) 小生이一年前、엇던機會에花柳界에발을되린바、不幸이도梅毒에感染되여、局部에下疳의症狀을나타내여、얼마안되여背部一面에 여드름과가튼두드러기가나와슴니다。局部는潮皮(潮脈)에콩알갱이와가튼것이생기고、膿이나와슴니다。곳近處病院에가六〇六號注射를、二十餘대나맛엇든바、局部의瘡는적어젓지만 膿이차는것은 如前하엿슴니다。그러는동안 注射料가만하지고、料金이 업기때문에 中止하게되엿슴니다。

그때에한一個月治療를放置하엿든바治療當時와는 何等의變함이업시、擴大도안되고、縮少도안되엿다、여드름도안삭고、더퍼지지도 안하엿지만『무름에흉』이란 騷言과 갓치、근심되여、여러가지藥도內服하엿지만、조곰도效果가업서서、悲觀하엿든바貴社製藥베루쓰丸의效果잇단것을듯고、本年一月初에五圓짜리를每月購入하여、一日도넘기지안코內服하여오늘까지왓습니다、云云(以下紙面關係로省略)

이에依하면

이患者는、梅毒感染의무서운것을알고、比較的早期에治療를하엿지만、治療中經濟的으로餘裕업기때문에、中止치안호면안되게되엿슴니다。

그러든中幸으로好評이잇는ベルツ丸에依하여、다시治療를持續하여、危險한境地를겨우避하게되엿습니다。

그런데世上에는、이와가튼事情때문에、治療를中絶하여、病勢를第二期第三期梅毒에로進行惡化식히는사람이 적지안이하다。

右例로서도

아는바와가티、한번梅毒에感染되면皮下에서繁殖하기始作하여、約三週間지나면그部分에구든멍울이發生하여、곳第一期梅毒、또는初期硬結、홍은硬性下疳이라고하는것이어서때때로梅毒에對한知識이업는사람은、이런것을輕視하고治療를안하는結果、鼠蹊淋巴腺이부어나고、苦痛을말하게되는、그것이梅毒性橫痃인바、이거야말노도레포네—마가局部로부터 淋巴管을通하여 全身에蔓延한證據로서、淸潔하엿든사람의血液도、어느덧全身的에 번지게되는것임으로、이때에眞劍한治療에 努力하지안으면、漸次로骨과肉도、梅毒때문에짓밟피다십히되다、梅毒第二期、第三期가되면

全身의皮膚

에、散在性으로 홍은 隆起性의 丘疹으로서 여러가지形態로 되돌로를 나타나서 口中、咽喉、肛門、陰門等의粘膜을犯하여、發熱、關節痛、脫毛、頭重、神經衰弱等을 이르켜、元氣衰退하여、極度의 疲勞를自覺하는일은 梅毒患者自身이 되면、엇더한것이든지알게될것이다。

梅毒이무서운것은、十年廿年後에잇서、想像以上의悲慘을演出하는거와갓치、梅毒感染者는、輕重症을不問코、經濟가許하는限、길게 治療할 方法을 세워、참으로 効잇는適應藥에依하여、驅梅內服療法을實行하는것이、가장賢明한方法이다。

ベルツ丸은

一般梅毒、體毒、痳毒、橫痃等에는勿論、遺毒、冷毒、루마티스、精疾의皮膚病、여드름、부스름、動脈硬化、便秘等、모다梅毒으로부터오는疾患에對하여、特異한効果를갓고、服用日을따라 다음가튼効力을알게된다

▼더러워진血液이 淨化되고、

▼梅毒에依한 毒素가、排便과 함께體外에放出되며

▼따라서細胞組織、內臟等을强化케하며

▼特히胃腸에는 消化力을增進케하여 便通을自然스럽게 排出식힌다。

▼要컨대ベルツ丸의 連服에따라、氣分이明朗케되고 元氣를恢復식히는것도、그効果作用에依한 梅菌의 排泄와함께 諸臟器의 機能이 旺盛케되는結果입니다。

梅毒은一見全治한것갓지만、梅毒菌은體內에 깁히潛伏하여 때를따라 猛烈하게 全身모든機關을犯하는 病이어서 하로라도速히ベルツ丸과갓튼 効果本位의特殊한 梅內服藥에 依하여、迅速히 疾病의病根을驅逐하시라!

梅毒과體毒 梅毒性부름에

베루쓰丸

梅毒、體毒、痳毒、橫痃、遺毒、冷毒、腦梅毒、遺傳梅毒、루마리스、濕疹皮膚病、梅毒性부름、여드름、動脈硬化症、梅毒性便秘等의梅毒性疾患에良効잇슴

定價 六日分一圓·十二日分二圓·廿日分三圓·卅五日分五圓·七十五日分十圓·百六十日分廿圓·二百六十日分(德用)卅圓 送料四十二錢·代引十五錢增

東京市日本橋區濱町三丁目四十番地
發賣元 鈴木日本製藥社　社主 鈴木浩二
振替東京一〇五番 電話茅場八〇番·九〇番

代理店 京城 木村、新井　釜山 大黑、藤田

이노우에눈씻는약
井の目洗藥

속하고잘낫는
안질일절의량제
정상눈씻는약

井上目洗藥은如何한眼疾에먼저
絕對로神効합니다
一次井上家寶의眼疾藥을使
用하신분은藥効의信用이多大
함을말합니다

全鮮各藥店에서販賣합니다

定價
拾錢
貳拾錢
參拾錢

本舖 京都市麩屋町通佛光寺南
井上清七
振替大阪三八〇八番

有名한 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ノーシン

머리가몹시압흘때……노ー신
골치가갈러지는것가치쑤실때……노ー신
간간히번두머리를알을때……노ー신

頭痛이아니라도머리가무겁고호릿할때
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할때
술을過飮하야그翌日氣分이
조치못한때
이노ー신한봉만잡수시면
神出奇妙하게도나슬뿐만아니라
平時에服用하시드래도
머리가아주明快해집니다

이藥은全國賣藥商店에잇습니다
各處賣藥房에도무르보십시오

이商標에注意하시압

노ー신

定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三十八包入	一圓

發賣元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二十日부터 五日間

¥18 均一

三揃廣背

本年掉尾 夏服感謝奉仕

大奉仕品	
背廣三揃	一八、〇〇均一
白セールズボンA	三、九〇
同 B	五、八〇
レインコート	七、〇〇

三中井
四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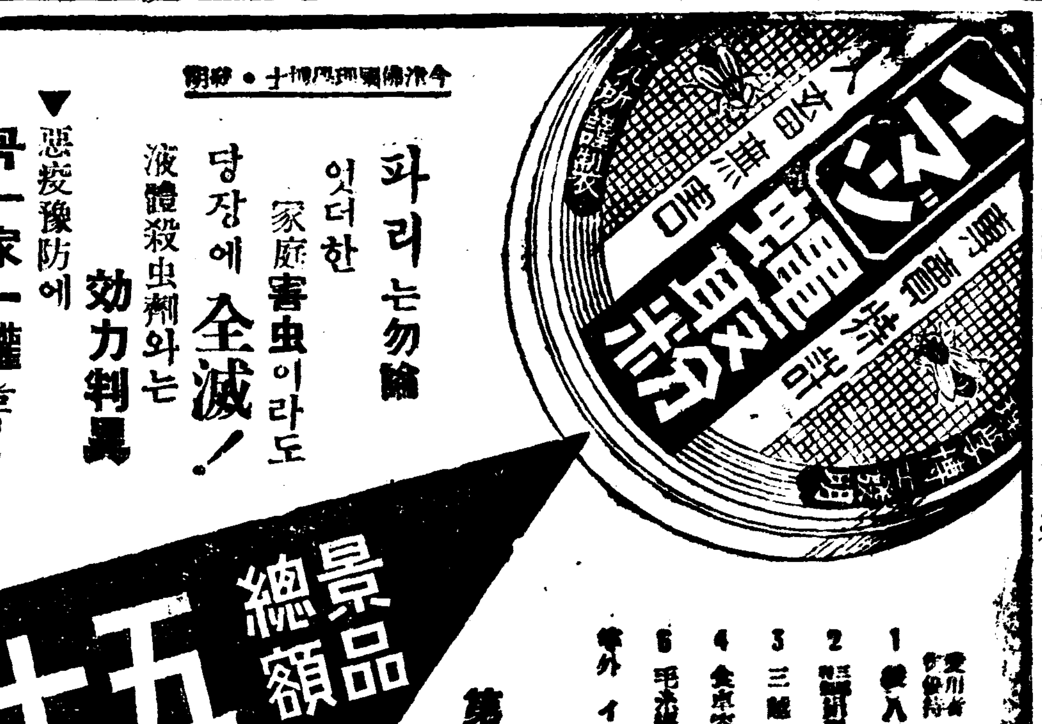
今津佛國理硏門博士・十河謹製

파리는勿論
엇더한家庭害虫이라도
당장에全滅!
液體殺虫劑와는
効力判異

▼惡疫豫防에
꼭一家一罐을!
◎반대用(赤罐)イマヅ蠅取粉區別잇슴

景品附 イマヅ 製品
▼イマヅ蠅取粉
▼イマヅ殺虫劑
▼イマヅ芳香油
(全國藥店に有)

大阪市・大仁本町三
株式會社 今津化學硏究所



景品總額 五十萬圓提供!!
愛用者サービス 空くじなし

第二回抽籤 締切・八月廿日 發表・九月上旬

愛用者優待 大景品
1 輸入綿布 三、七五〇名様
2 大洋傘(一本) 六、二五〇名様
3 三越特選 割烹着(一着) 三七、五〇〇名様
4 金京香浴衣地 一〇〇、〇〇〇名様
5 毛糸編物 二五〇、〇〇〇名様
番外 イマヅ防虫香(一函) 抽選者全部
(詳細規定は製品に添附)

H-107

ギターはモンタノ印
レコードケースはスタンダード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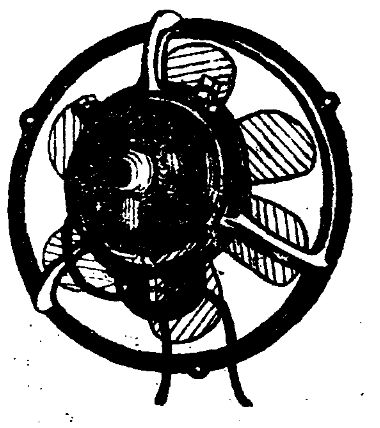
發賣元 名古屋 帝國発明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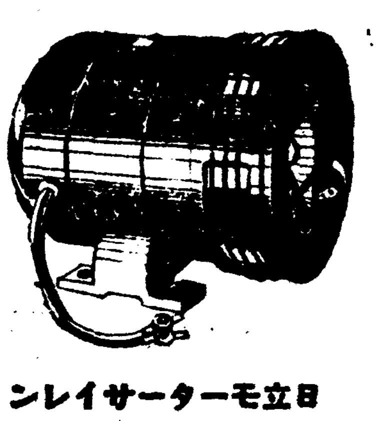
政府允許 # 六方醫法器 絕對療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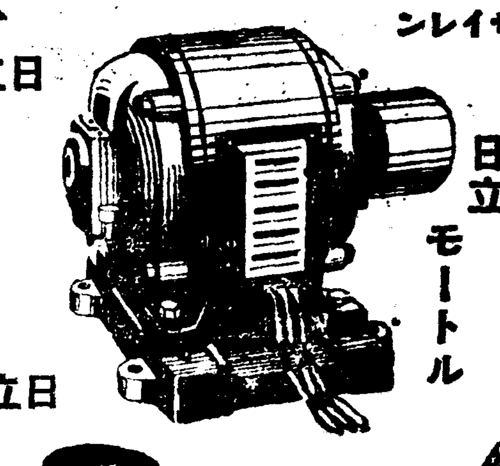
◎◎神奇한療法으로써現下自然的好評絕對로다른데는업다。
一指療處에찌ー르하게되고손바닥에서六大刺戟을放射함
本器術者의身體에裝置하야서손바닥부터熱感에래기濕熱其他
六大刺戟을強弱自在로放射할더구나外面에서보면조금도알수
업는이상한器械、그러고從來各種療法에수
應用하면또超絕的効果가잇다。即時누구
나될수잇는收益多大無試驗開院할수잇合
名古屋市東區栞町下四五、電話東六三二七
(說明書無代進星) 醫聖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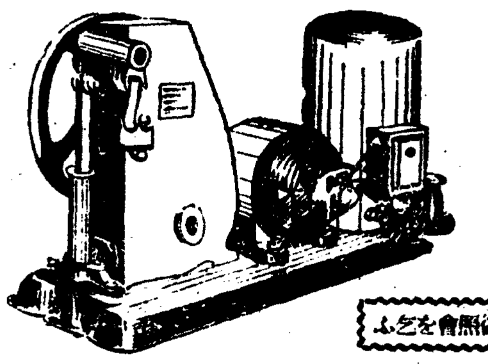
金銀白金 高價買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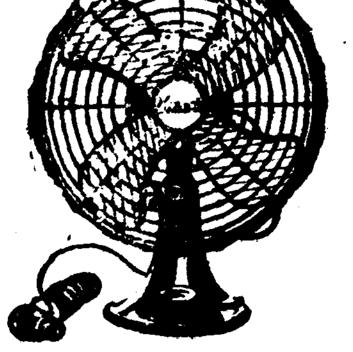
京城府黃金町三丁目三
金寶堂
吳健燮
電話本局七六七番


日立換氣扇


日立モーターサイレン


日立モートル


日立電氣ポンプ


日立電氣扇

最寄特約店に御照會を乞ふ

日立製作所
東京・丸ノ内

大阪市西區土佐堀通一ノ一
福岡市博多片土居町四一
大連市紀伊町八五
名古屋市中區南大津町一ノ十一ノ一
札幌市南二條西十三丁目二一九
京城府黃金町二ノ一九五

七月十七日부터 大公開
大衆料金 階下十五錢 階上二十錢 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합
大파라마운트社超特作發聲日本版
大爆笑劇 엄마는압바가조와
監督…노만마ー크라호든氏
主演…잘스라크스氏 全七卷
新興키네마社超特作映畫
時代活劇 戶並八郎 全十卷
監督…並木鏡太郎氏
主演…嵐寬壽郎氏
死物狂 全二卷
麻浦桃花洞 電話龍山一二一三
桃花劇場

七月十九日より七月二十一日まで 特別公開
階下十錢均一
中元大入萬歲御禮のため特に大衆料金
新興キネマ社 坂東好太郎主演映畫
原作菊池寬 新興映畫
恩の復讐
遠山滿之介、久松玉城
葉山文彦、松本泰輔 共演
森静子、森赤三郎
映畫界を風靡せしエルンストルビッチ一代の傑作パラマウント代表の映畫金字塔
生活の設計
パラマウント超特作全發聲日本版 エルンスト・ルビッチ氏畢生傑作品
フレドリックマーチ
ゲーリイクーパー
ミリアムホプキンス 共演
お待ちかね鳥人ハヤブサヒデト続篇の大內弾猛闘劇突如封切
大都映畫超特作現代映畫
ハヤブサヒデトプロダクション作品
原作谷逸馬 監督大江秀夫
ハヤブサヒデト猛闘主演
裏街の大統領
大河百々代、清水明
高村榮一、橘喜久子 共演
宮城浩二、松村光夫
鳥人ハヤブサヒデト得意大活劇續編の娘奈さ子のためにギャング團を向に廻して銃火閃めく大爭鬪劇
櫻井町 本町八〇
大正館

七月十五日부터 超特別大興行
『讀夜三回』
유社超特別大作發聲音響連續篇
에도가라이스바로ー作의映畫化!
猛虎 다ー산 全三十卷中 前半十六卷 上映
巨匠헐리막크래ー氏大作
쿤모헙강 맥리ー루氏 猛演
助演나다리캉그스트웰
아프리카창공의冒險篇로이리나는戰慄!冒險의慘虐!類猿人다ー산
과同根異枝로當當三十卷의連續으로다ー산의活躍을描破한다ー산映畫의本格的完全篇
大都映畫社超特作現代劇
吉村操氏監督作品
中差おでん 中篇
佐久間妙子 伴淳三郎 島田文郎
大熱演
次週封切豫告!
그날밤의眞心 爆彈손스
貫鐵洞 電光三九四
優美館

七月十七日より
名監督の前には夏枯れ無しを實證するファン待望の『浪花名畫祭』
十七日より十九日まで
一、M、G、M、超特作日本版
監督 W、S、ヴァンダイク
主演 マーナ、ロイ マックス、ベアー
△世界拳闘王
二、パラマウント超大作日本版
監督 セミル、B、デミール
主演 クロデット、コルベール
△クレオパトラ
二十日より二十二日まで
一、M、G、M、超特作日本版
監督 ルーベン、マムリアン
主演 グレタ、ガルボ
△クリスチナ女王
二、パラマウント超特作日本版
監督 ミッチエル、ライゼン
主演 カール、ブリスン カートルド、マイケル
△絢爛たる殺人
愈愈次週封切の涙と爆笑の二名篇
△模倣の人生 △極樂發展俱樂部
洋劇專門
浪花館

七月十七日부터 超特別大興行
每日三回 午前十一時 午後二時半 七時半
……特別料金……
◎佛蘭이나은最高의樂劇쇼광映畫全歐一派의映畫人文人樂人을網羅하야完成한名篇中의名篇
離別의曲
토비스超大作日本版
짠쇠비이지主演
高雅한藝術의香臭未完成交響樂以上의傑作으로推賞되여잇는堂堂한傑作!
◎新興체코스라봐키야가나어노은甘美와도가튼少年少女의거륵한回想의珠玉篇
첫사랑 (日本版)
素朴한感想이아름다운山野와湖畔에펼치는淸純이수노아진黃金篇!
야밀아빼란코봐主演
◇大朝世界뉴ー스
次週부터……模倣의人生、夏의超特急
乞期待
永遠의靑春 나는낫 그대는밤、盲目의飛行士 大學의리용 빼빼의인사
全鮮第一映畫殿堂 電光九九
團成社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話光化門二一四九番

京城南大門市場商人聯合會

京城府南大門市場
內外果物委託
元亨商會
崔亨根

京城南大門市場內
果物商
表弘根

宋祥九

京城府南大門市場
內外生野菜海陸生果 松實、栗、胡桃、クルミ 物產委託問屋 卒配バナナ直輸入
張元鍾
電話本局二一六九番
振替京城二〇二五番
電略(ゲン)又八(ゲン)

京城府南大門市場
海陸物委託業
三正商會
金興悅
安昌鎬
長電話本局四二一〇番

京城府南米倉町八十八番地
日新商會
主 盧裕成
電話本局二四〇〇番

京城府南大門市場
海陸物產委託問屋
金正善商店
長電話本局一八三六番
電略(イセ)又(イセ)

京城南大門通市場內
朴慶淳商店
主 朴癸得
電話本局二八七七番

京城府南大門市場內
海陸物產貿易及委託販賣業
合資會社
大昌商會
代表社員 元鎭泰
長電話本局三四〇七番
電略(大)又八(大)

京城南大門市場
砂糖、菓子原料、製粉、水飴、白絞油
朝鮮物產商會
朴癸得
電話本局二八七七番
振替京城一五七〇〇番

京城南大門市場
海陸物產委託販賣業貿易商
田學淳
海產物部
長電話本局二四二〇番
電話本局五二七六番
電略(デン)又八(デ)

京城南大門市場內
諸果物乾魚、油菓、精糖品、各梅子、甘草、直輸入、卸賣
張基瑛商店
電話本局四七四九
振替京城八三三〇

京城南大門市場
海陸物產委託販賣
安慶春
電話本局長一八三番
三九七〇番

京城南大門市場入口
內外果物委託 海產物、花形米菓子、コンペイ糖、油菓子、製造卸
有光商會
振替京城八〇三三

京城南大門市場
海陸物商
金明洙商店
電話本局四三二九番

京城南大門市場內
海產物貿易商
林聖初
長電本二八二番

京城南大門市場
生果、乾果、油果、唐屬商
安春植

京城府南大門市場
海陸物產委託販賣及貿易業
主 基倫
同信商會
取引銀行 林 孫 長電話本局一一一五番
東一銀行南大門支店
小賣部 南米倉町七二八番地

內外菓子會社特約店
製菓問屋
京城製菓商會
京城南大門市場入口
電話本局三二六二
振替京城一八九二八

京城府外阿峴里二六九
生栗代用에白栗葉은瑞昌!
米の菓子、フライ粉、高級燒物、菓子婚禮品、特選蒸菓、花形果子、其他各種
製造卸商
瑞昌堂製菓所
電光一五〇五番

京城府南大門市場
內外生果實、松栗、柿、栗、勝栗、ナバナ、物產委託問屋
委託問屋
成明信本店
本店 電話本局(長一六八六番 五二一番)
振替京城一三三八番
支店 鍾路五丁目二百五番地 電話光化門長八一七番
小賣部 京城驛前ソウルビルジング 電話本局一六九四番

米穀貿易商
孫完榮
電話本局一四七六番

京城南大門市場
米穀貿易商
廣信洋行
金聲濟
長電話本局四〇一〇番

德興精米所
主
申德興
京城府南大門市場內
電話本局三六四三番

京城南大門市場內
青物海產委託販賣
問屋
金龍文
電話本局四三九一番

京城府南大門市場
內外果實委託販賣
主任 金光洙
元胤洙商店
長電話二二九八番

京城府南米倉町二八三番地
野菜果實委託販賣業
金顯宗
電話本局八七二番

猛威의傳染病

平南에도繼續猖獗

半年間에發病者八百餘로 死亡者만도二百餘名

【平壤】 금년중에 발생한 평남의 전염병환자는 ▲赤痢 八七名 ▲腸지부스 二六名 ▲파라지부스 三名 ▲痘 二名 ▲發疹지부스 一七名 ▲지 第一〇名 ▲ 二二名 ▲流腦 六名 합계 백팔십이명으로 이것을 전년동기에 비교하면 십삼명의증가인바 처리환자가 더욱현저하다고한다

또 금년일월이래 칠월말일까지의 전염병환자 발생수 팔백칠십명중에서 사망자가 백구십오명으로 작년의 발생 칠십팔명 사망육십육명에 비하면 놀날만한증가로 이것은 대개가 류뇌, 두창, 지푸테리, 라지파부스 적리등에 희생된것이라고한다

多年間要望이든 電信電話架設

【水據】 황해도수교지방은 소화사변에 조치황해선(…)으로 생각하는일반 각방면으로의 중점이되어 비약적발전을 운동을 계속하는바 관계당국으로 보이고잇서 모든방면으로보아도 로부터 지방주시의면목을 가초게되엿는데 아민의부담 일천팔백원의 납부직도 상업도시로서 가장필요한 차제로 가설의운동을 엇게되엿 전신전화(電信電話)의 가설을보는데 머지아니하야 그실현을보지못하야 일반시민은 방상히갈망하다

本報禮山支局主催 全朝鮮씨름大會 八月十三、四兩日間

【禮山】 본보례산지국에서는 오는팔월십삼, 사일량일을 긔하야 재일회전조선씨름대회를 주최하여 개최키로 되엿다는데 지방선수의 참가를 특히환영한다 그리고 그규정은 아래와갓다

日時 八月十三、四日(兩日間)
場所 禮山邑內
賞品 一等 農牛(大牛)一頭 二等 小牛一頭 外十等까지

海州體育會主催 全朝鮮庭球大會 新聞記者團後援

【海州】 해주체육회(海州體育會)에서는 해주신문긔자단(新聞記者團)후원아래 오는팔월이십일오전 십시부터 해주고녀(高女)코-트에서 제이회전조선개인정구대회(全朝鮮個人庭球大會)를개최하리라는데 우승자에는 우승긔(優勝旗)외에 부상으로 러비오십원、준결승자에게는 각러비십원식을지급한다하며 제일회대회에출전하엿든선수는물론이요 전조선각지에서 다수참가하기를바란다고한다

仙山貯水池서 中國人屍發見

【海州】 해주군서변면선산리(海州郡西邊面仙山里)에거주하는산동성(山東省)출생의 야채업자왕장화(王長華)(三一)는최근에정신에이상이 생겻섯는데 지난십삼일 오전열시경 무단출가하야 집에도라오지아니하므로그행방을수색하든중 지난십륙일 오후두시경 그부근의 선산수리조합저수지(仙山水利組合貯水池)에익사체로떠잇는것을 통행인이 발견하고 해주서(海州署)에신고하야동서에서검시한결과 익사한것으로판명되엿다한다

本報支局後援의 三務音樂盛況

【車輦館】 창립일주년을맛는신의주삼무학교음악부(新義州三務學校音樂部)…

漣川郡敎育會定總

【漣川】 연천군교육회에서는 오는이십일일오전열시부터 당지보통학교강당에서 교육회총회를 개최하고 계속하야동일오후두시부터는 강연회가잇스리라고한다

警察의不許로 方一獨唱中止

【原州】 긔보=원주출생의 성악가 방일군의독창대회는 십일밤 원주공회당에서 개최한다는데 그간 경찰당국에 허가수속을진행하든중 내용이불미하다는리유로서 불허가되어 일반은 극히유감으로 생각한다고한다

原州邑의重要問題 上水道設置計畫 明年度엔實現豫期

【原州】 원주는남부강원에잇서산업교통상 중요한지위를 가지고잇는도회지인데 읍내부지의 삼분지이가 하천부지로 읍내정호(井戶)삼백사십오개소에 부적음료수가 삼백사십오개소로 적당한음료정호는 십개소에 불과하야 시민의위생 보건상중대문제이므로 일반시민은 공포중이든바 지난팔일 면회의에서 상수도가설안이 가결되여적어도 명춘에는 실시를할 계획이라는바 이에대한 공비는 구만원가량인데 그중 삼만원은국고보조로하고 륙만원은 긔채로충당하리라는데 저수지(貯水池)는 판부면반곡리(板富面盤谷里)가 유력한후보지라고한다

五山高普校 復興寄附還至

【古邑】 정주오산고보(定州五山高普)부흥긔금이 련일답지한다는것은 루보한바와갓거니와 건축락성을불과이개월에일두고 사회유지、학부형、졸업생측의정은 더욱맹렬하야 부흥기금을부송하야 지난십칠일까지에도 근이천원이라는거액에달하엿다는데 긔부인사의씨명은 다음과갓다

有志側 五百圓寧邊車弘均 二百圓新義州高一淸 一百圓宣川林京範 三十圓定州白元燦 三十圓定州金澄鉉 二十圓同李聖三 二十圓同金洛亨 學父兄側 百圓安州金日泰 十圓中和金基鼎 十六圓慈城金永三 十圓式江界金允煥 博川朴寶雍 同金性薰 十五圓順川吳祖潤 十圓式平原申道淳 龍川李世龍 厚昌許基 五圓式熙川金錫鼎 厚昌金琮塤 十圓龍川咸允澤 五圓博川朴勝采 十圓式龜山朴鉉求 博川玄命均 龍川金毅俊 定州鄭厚均 同玄商祖 陽德李寶正 安州康鎰 秦川朴秉基 三圓博川鄭達鉉 五圓式龍岡康進先 五圓陽德朴承華 十圓式熙川吳榮齊 昌城康允元 五圓雲山崔碩 十圓慈城宋德弘 五圓鐵山金基亭 百圓安州李東燮 十圓定州林應三 五圓義州朴熙春 十圓龍川張炳寬 五圓式定州金榮武 同金順永 十圓式新義州吉應洙 成川韓明烈 二十圓安岳… 五圓安州李寬植 十圓式寧邊韓東佑 博川趙駿錫 十五圓寧邊明成屹 十圓式定州朴潤洞 博川吾龍三 五圓式定州朴熙徵 安東縣金斷國 十圓式義州韓鳳植 江界韓仁敎 龍川李京林 五圓昌城白榮弘 十圓式定州崔熙澄 定州李鎭默 安州徐廷憲 定州金基涉 十圓式雲山李重明 定州池應革 五圓谷山崔東植 十圓式古邑李增柱 新義州李龍現 江界玄昌松 五圓定州任錫彬 十圓…

平壤警察署에서 又復大量의焚書 赤、桃色書籍三萬部

【平壤】 평양서에서는 차압한적색(赤色)도색(桃色)의 서적과신문잡지등의수량이 극히만허저서 보관에곤난을늣기게되여 대동강안에서분서(焚書)를 하기로되엿다 그런데 부수는자그마치삼만부가 되다그밧게차압한신문도 내용의 긔사가거의전부가 임의해금되것을 이어서 최초에는매각할 심산도 잇섯스나 중지하고삼만부의서적과함게신문이백관도 대동강안에 운반하여다가 태워버리기로되엿다 하여튼평양서로서는 이번과가티만흔서적과신문을불사르기는 처음인것으로 그날에는일대장관을일울모양이다

牙山地方도旱魃

初伏이넘도록비를못보아 移秧畓도龜裂狀態

【牙山】 충남아산지방에는 초복(初伏)이넘도록 비한방울구경할수업서인심이 자못흉흉한바 금년간에상당한강우량이업스면 심어논벼까지도 고갈될념려로일반은불안에싸여잇다고하며 더욱이고원지대는 더욱심하야 농작물은전멸상태라고한다

옛는바 성적이 례년에 비하여 량호하리라하며 공동판매가격은 아래와갓다고한다
一等 一二、二七 二等 一二、〇七 三等 一一、八七 四等 一一、六七

選擧違反으로 面協議員收容

【海州】 해주서(海州署)고등계에서는 지난칠월십일 해주군천결면갈산리(海州郡泉決面葛山里)에거주하는 동천결면협의원(泉決面協議員)려중현(呂重鉉)을 검거하야 본서에인치하고 학교평의회원선거위반(學校評議會員選擧違反)사건의혐의로 엄중취조중이엇섯는데 동서에서는 지난십륙일 일건서류와함께 해주지방법원(海州地方法院)검사국으로송치하엿든바 검사는 당일즉시해주형무소(海州刑務所)에 강제수용하엿다 사건의 내용은 전긔천결면 학교평의회원 선거당시에 투표(投票)를 방해한것이라는데 사건의 발단을보면 최근결면중에잇는 천결면장(泉決面長)의의자를중심으로 동면유력자간에는 여러파로대립되어 갈등되여오든바 이것이결국전긔선거위반사건을비저내엿다한다

民會長非難文을 各機關에配付

【新京】 지난십삼일부우편으로전만각긔관단체에 전만조선인민회 금련합회장모씨에대한 비행과비난을렬거한격문을 등왜하여 전만조선인유지대표일동이란 일홈으로 발송되엇는데 경찰에서는 즉시출처를 엄탐중이라고한다

少女一名溺死

【谷山】 지난십사일 곡산군도화면무릉리리명간(谷山郡桃花面武陵里李明幹)의둘재딸아홉살먹은 소녀가동무들과가티동리압개천에서 놀다가 그만물에빠저 무참히죽어버렷는데 시체는 그이튼날에야 발견하엿다고한다

地方人事

▲金會德氏(朝鮮耶蘇敎長老會牧師) 新任人事次本報新京支局來訪

可驚할消費量

平壤府民用水가 一日동안八萬石

【平壤】 지독한더위는 물과접근하게되여 수도의메돌은 무섭게도올나가서 십칠일하로동안의 급수량(給水量)은 일만사천오백팔십칠방미돌에달하여 석수로 환산하면자그만치팔만석(石)의소비이다 급수호수는 이만륙백구십팔호이므로 일호당 삼석식의 비례이다 이것은 작년동일에비하면 칠천석의 증가인바 인구증가에따르는 자연증가일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수도설비는 이만리방미돌을수십일만석까지의 여유를가지고잇는만큼 단수(斷水)의 우려는 조금도업다한다

原州郡農會서 小麥共販開始

【原州】 원주군농회에서는 년례에의하야 금년에도 소맥공동판매를 십칠일 장날부터 개시하엿다

釜山法院豫審判事 平壤에서猛活動 前曺檢事事件關係?

【平壤】 부산지방법원예심판사길천원평(吉川圓平)씨는 십륙일입양하여 극비밀리에 모모를취조중인데 이것은 배임죄의 혐의로 심리중인 전평양지방법원 검사조인환(曹仁煥)사건에대한관계자들의 취조인모양이다

盛況을豫期하는 讀者慰安音樂會 二十七日로漸迫

【豊川】 본보풍천지국(本報豊川支局)에서는 긔보와가티 독자위안음악회(讀者慰安音樂會)를 개최코저만반준비중인바 장소는 당지공립보통학교강당으로 정하엿다하며 시간은 당일오후팔시부터 라는바 음악대원은 평북선천신성중학음악부원(平北宣川信聖中學音樂部員)으로다음과갓다는데 본보애독자들은 그날을손곱아가며 기다리는중이라는데 당일의성황을예상하고잇다고한다

隊員氏名
引率者 鄭賁燮 金良儀
隊員 金麥洞 鄭義淳 田利錫 鄭義璜 白再圭 金麟植 金斑徹 鄭榮奎 吳銘文 白英俊 鄭俯伯 李學濂 任炳俊 金行紹 柳凱祥

그女子의一生 【162】

春園 作 夕影 畫

방랑편

『남의 애인을 빼앗아서 혼인하는 년의 심사가 편하것소?』

하고 영자는 고개를 돌려서 웃는 목에 시무룩하고 안젓는 금봉을 힐끗 본다.

『그건 다 무슨 소리야? 혼인날 깃븐 날 그런 소리는 왜 해?』

하고 옥남이가 영자의 처마허리를 치켜준다.

『무어이 무슨 소리요? 임이 금봉이 애인 아니오?』

『에잉,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웨 언니도 안 그랫소? 임허구 나허구 혼인한다는 말을 듯더니 금봉이가 긔절을 하더라구. 무업 우울증을 속이우?』

『에잉. 그런 소리 말라니깐』

『웨 말어? 난 아직도 마음이 작정이 안 되는데 오늘 내가 식장에 가서 신부가 될까 둘리리를 설까』

『원 벨 소리를 다 하네』

하고 옥남은 금봉을 돌아본다.

금봉은 무르띠만 들여다보고안젓다.

영자는 금봉을 힐긋 돌아보면서,

『금봉이가 날더러 임허구 혼인말라면 인제라도 그만둘테야 내가 웨 평생을 두고 남헌테 원망을들어。 패니 형식을바랑 옥남언니랑 서들러서들 그리지 내야 이혼인을 꿈이나 꾸엇나 안 그럿수 언니? 그러니깐 금봉이가 말라면 나는 말테야. 또 옵바도 돌아가시구 어머니 혼자만 남으시구 나는 도모지 시집갈마음이 업서。 게다가 금봉이가 저러케 긔절을 하도록 설어하고 한평생두고 날 원망을 할텐니 내가 어떠케 편안하겟서 언니가 그러시면 난 어떠케면 조하?』

하고 기막힌드시 몸을 튼다.

『아 이거 무어를 하구잇서? 시간이 다 되엇는데。』

하고 형식이가 손님으로 비스듬하게 걸려쓰고 다닥을 두르고 들어오며

『신부, 어디 잇서? 무업 꾸를 거려 어서 나와』

하고는 또 줄며 소리를 놓아서.

『아주머니, 아주머니, 시간 되엇습니다.』

하고 쾌활하게 웨친다.

영자어머니는 머리방에서 영자와 금봉이 사이에 와다가다 하는 말을 다 엿듯고 대단히 위와 금봉이와 사이에는 벌써 잇슬 일은 다 잇슨것가티 생각은 새사정을 하엿다. 이 생각은 … 마암을 지붕우으로 넘긴다는 것이 떨어러젓다. 사주단자와 치위 일휘제에게 대한 설움만 … 면자에 형식이가 쾌활하게 부르는 소리를 듯고는 마음이 좀 누그러져 뛰어나왓다.

『웅 형식이 왓나? 벌서 시간이 되엇나? 애 자동차 왓느냐 다들 무어들 하는냐』

하고 영자어머니는 불쾌한 생각을 떨어버리랴고 일부러 밧브게 서둘른다.

『자동차는 벌서 와서 기다리고 잇는데요. 운전수는 한참 자고 난 모양이야요』

하고 형식은 단장으로 마루끗을 두드리면서,

『아, 이, 무어들 해?』

하고 재촉을 한다.

방에서는 영자와 금봉과 옥남과의 사이에 바늘 품고 칼품은 말이 와다가다 하는 모양이오 잇다금 영자의 쨍쨍하는 성난소리가 한 마듸씩 들렷다.

『또 무슨 변괘가 낫서? 어서 나와』

하고 형식은 영자의 도모지 어거하기 어려운 성질을 상상하엿다. 필시 금봉에게 대한 질투여니, 하고 형식은 알아차렷다. 그러나 금봉에게 대한 질투이외에 다른 원인——이번 혼인에 대하야 짜징을 내이는 다른 원인 하나가 잇는 줄은 오직 형식만이 안다. 그것은 영자의 형식에게 대한 감정이엇다. 형식이 영자의 죽은 옵아비와 절친한 친구로 영자의 집에 좀내외하고 다닐 때에 영자는 형식에게 대하야 옵바라는 정도이상으로 사모하는 정을 가지고잇섯다. 형식도 그것을 잘 안다. 그러나 형식이가 비록 남면서도 결코 저를 잇고 따르는 이를 건드리는 사람은 아니엇슴으로 혼인할 처지도 못되는 영자에게 대한 관계를 벗기지는 아니하여왓던것이다.

婦人公論 8月号 本日発賣 定價五〇戔 この夏はこの一冊!

実話 母なきあと
□父さんの再婚までを
□青春をみおくりつつ
家庭の魅力とも言ふべき美い調を亡つた家の娘等のどれない家庭に於て、如何に生き、如何に身を愛して來たか!ただ涙に咽んだ夜もある……微妙な娘の愛と涙の手記三篇!

母のおもひで 石井柏亭
家族制度の特質 徳富蘇峰
今日の政局 御手洗辰雄
經濟講話 小汀利得
世界情報 清澤洌
名・作・物・語 春琴抄・家なき兒・泉

長篇連載小説
盛装 横光利一
青空士官 吉川英治
金の鎖の匣 里見弴
虹の花 野上彌生子
露を厭ふ女 白井喬二

赤ちゃん特輯
世の中に赤ちゃん程可愛らしいものはありません。そして又赤ん坊ほど心配なものはありません。赤ちゃんを丈夫に元氣良く育てたい!これは萬人の念願です。この特輯をお母樣方に捧げます…貴女の赤ちゃんの幸福のために…
赤ちゃんの獻立と作方 醫學博士 中鉢不二郎
醫者の立場から 小松通允
赤ちゃんの美容 美容師の立場から 山野千枝子
赤ちゃんのドレスと肌着の作り方 隅田房子
消化不良の豫防と手當 杉田鶴子

牧逸馬氏夫妻の結婚記念撮影
牧逸馬の結婚ローマンス 松本泰
原稿が賣れ始め、やつと結婚するまでの、世に秘められた物語

リレーローマンス
第一選手 北村小松 スタートは東京は銀座の眞ン中!
第二選手 岡本一平 美しき令孃の繰られ行く運命や如何
第三選手 杉山平助 あゝらあやしやナ!ソロバン玉の怪
第四選手 池部鈞 無人島に漂流した令孃の命旦夕!
第五選手 伊馬鵜平 戀も命もすべては金、金、金の世の中
眞夏の狂想曲

魔の池に教へ子の屍を求む 悲泣の女教員 山本定子

ニュース小説 母の犠牲 中村武羅夫
警ひ月は暈を脱がうとも母の目に涙の乾く時はない……涙なくしては讀めぬ母性愛の事實物語 眞實の子でありながら永遠に子と呼びかはすこともならず、下女として奉仕してゐたのに、子の結婚の後それも叶はず、遂に死を以て恩愛の絆を斷ち切つた、世にも哀れなニュース・ローマンス!

撮影所めぐり(松竹・大都の巻) サトウハチロー
牧君の死(僕の見た)嶋中雄作
古風なる短歌(藝術深園) 齋藤茂吉
加賀の千代(女性列傳) 長谷川かな女
世界の優生運動 永井潜
保健と日光の効用 大平得三
盛夏の趣味帖
隨筆・夏の女 森田たま
社會時評 幸福を求めて死を餘つる妻 山川菊榮 母子ホームの眞意義 市川房枝

シューベルト 名曲畫物語 ★一木弥 嶺田弘 加藤まさを 小林秀恒 富永謙太郎

岡田嘉子自叙傳 事實は小説よりも奇しく嘉子の筆は作家よりも妙なり

刑事の妻 三角寛 一度迷宮入りをした兇悪なる强盗殺人放火事件を、夫のため刑事の名譽のために努力し、遂ひに犯人をつきとめた事實小説!事件の裏には深く流れる人情あり、涙あり、興味溢るゝ絶讚の好讀物!

若妻讀むべからず べからず博士 若妻べからず帖

これさへ讀めば今日から警察か恐くなくなる 警察讀本
官民一致で生活を明るくするの空前の大特輯

警察に對する不平 実話十六篇
こんな不平は誰にもある——今迄言ひたくても言へなかつた警察に對する不平を讀者に代つて堂々警察當局に具申しその回答を求めました
警察に對する感謝 九の經驗篇
後藤内務大臣 小栗警視總監 唐澤警保局長 序
皆さんにもかうした不平の經驗がきっとお有りでせう!
警察側の回答 警視廳官房 岸本文書課長
警察權と我等の自由 片山哲

離婚せんとする友へ 金子しげり
離婚は結婚と同じく厳肅な人生の重大問題である。離婚するにはやはり離婚するだけのはつきりした原因がある筈だ。自身の經驗に鑑みて、離婚せんとする友々へ、親しき心を籠る、金子女史の熱涙に滿ちた手紙三通!

國債消化力限界

❶……變態低利下期底入

資本主義가 窮塞해지면 爲先 第一로 金融業이 本來의 機能을失키시작한다 金融業은 本來生産取引의金融을함으로써 本體로하는것인데 資本主義의窮塞에伴하야 그金融業도 漸次 이것을하지안케되고 單純한 證券投資家의地位로 墮落키에至하야 이것은 一方으로 定期預金이 增加하고 他方으로 證券所持가 增加하야 直接貸出이 不振함으로써도알수잇다

×

如斯히 銀行이 金融으로부러 投資로 方向을轉함에伴하야 銀行을支配하는것은 貸出利率이아니오 證券利廻如何에잇다 그結果로서 證券利廻가 低下하는限 銀行은 실트래도 定期預金利率을 引下하여야만 하게된다 그러데 證券利廻를 左右하는것은 定期預金의增減으로서 定期預金이 增加하면 銀行의證券投資가 旺盛함으로 證券利廻도 低下키에 至한다 그러면 定期預金의增加는 무엇으로부러 오느냐하면 高橋藏相은「그것은 國民貯蓄力의 增加로부러」라고 말하나 實際는 그러치안타 最近에잇서서는 國民의 貯蓄力의 增大가아니오 死藏資金의 增加에 依한것이다 그러면 死藏資金의 增加는 무엇으로부러 오느냐 하면 그것은 財政인푸레로 資金이 撒布되나 財界不振으로 그資金이 死藏化되어 金融界에 沈澱함에依한다

×

所謂 財政인푸레의交廻라는것이 이것으로서 財政인푸레가 行하야 그것이 交廻하는 限 定期預金을 增加하고 證券投資가 旺盛케되어 證券利廻가 低下하며 從하야 一般金利는 低下키에 至하얏다。從하야 이것을 關係者로 하면 如左하다

一、赤字公債發行
二、日銀으로부러 政府에의資金交付
三、政府의資金撒布
四、그資金이여러가지經路를밟아 逆으로銀行預金으로變形하는것
五、預金의增加로銀行은 公債에 買入을數하는것
六、公債市價의昂騰에從하야 公債利廻의低下
七、銀行의預金과投資와의間의利廻減少
八、銀行은利鞘를크게하기爲하야 預金의利下斷行

從하야當今의 銀行預金利下는 貸出日步와의 利鞘減少로온 것이아니오 證券利廻에對한利鞘減少로 온것이다 前後少로부러오는것이다 換言하면 最近의金利와金融을支配하는것은 證券利廻로서貸出利率이아니오 財政인푸레의交廻이며 國民貯蓄力 國民經濟活動力이아닌것을알수잇다

×

그럼으로 日本의金融界는 財政인푸레에 支配되어잇는 中이라고보는수 밧게업다 井上藏相의 財政데푸레金 時代에 定期預金이 減少하야 金利가 騰貴하고 그後의財政 인푸레時代에入하야 定期預金이 激增하야 金利가 低下하얏슴에 依하야보아도 그것을 알수잇다 交廻하는 財政인푸레가最近의 金融緩慢、金利低下의一大原因으로서 現在今回의 低金利가 證券界에 限定되어 오 事業界에는 도리어資金飢饉에빠저잇는터이다 事業界가如何히資金饑이며 株式界가 如何히資金缺乏을訴하드래도 그러것은 相關업시 金融이緩慢하고 金利가低下한데에 今日의低金利의特色이잇다 卽證券界全體를 背景으로한 것이아니오 旣述한것과가티 財政인푸레에 依한 銀行定期預金의增加에從하야 그것에 依한 公社債利廻의 低下를背景으로한點에 今回의低金利時代의特色이잇다 換言하면 今回의低金利는 公社債利廻의 低下를 通하야 國民貯蓄力의 增大에 依한 富의蓄積의結果가아니다 그럼으로 지금은 正히低金利時代의 窮塞과低金利의 不自然性을 云爲키에 至한것이다 今日의 低金利가經濟界全體를 背景으로한 것이라면 이런低金利의 自然狀態도起치아니할것이오 從하야 또低金利時代의窮塞論도 起치안홀것으로서 國民貯蓄力의 增大에依치안코 赤字公債發行에 依한 財政인푸레의交廻에 依한것인때문에 今回의低金利는 變態的 不自然的이라고 보기에至한것이다 (繼續)

全南北米代作物 蕎麥、夏稗、粟、蔬菜等

代作不能의荒廢畓도不少 忠南北降雨로移秧

朝鮮의穀鄕인 忠南北、全南北四道는 十五日現在의 移秧未了畓이 六萬五千餘町步에 達하야 今年 米作의 大減收를 免치못하리라고 하는바 그뒤 忠南北은 多少의降雨가 잇서 移秧이 進行中에잇다 그러나 全南北은 全然 降雨가 업서 農家의不安은 더욱 擴大되는터이며 移秧이 되지못한面積이 全南 二萬五千町步 全北二萬町步、計四萬五千町步에達한다 이에對하야 總督府農産課에서는 兩道當局과 連絡을取하야 代作을 勵行하기로對策을 講究中이라는데 代作의種類는蕎麥、夏稗、早粟、蔬菜等으로 目下 京城、沙里院等地에서蕎麥種百八十餘石을 罹災地에 移送하기로交涉中에잇다 當地被害地中에는 昨年水災로因하야 荒廢된畓이 만흠으로 此代作이 困難한곳이不少하야 當地今年의米作은五分乃至一割가량의 減收를免치못하게되리라고한다

代作物輸送協議 農産課와鐵道局이

別項과가티 全南北의代作을 하기로決定되엿는 때문으로 農産課에서는 中村技手가 十九日午前 鐵道局을訪問하고 代用作物의運送에對하야 協議하엿다고한다

▲東京爲替(十九日)
對米 賣 二十九弗八分一 買 二十九弗四分一
對英 賣 一志二片三十二分三 買 一志二片三十一分五
▲大阪爲替(十九日)
對米 賣 二十九弗八分一 買 二十九弗十六分三
對英 賣 一志二片三十二分三 買 一志二片三十一分五

二億圓의公債發行

七月二十日에

【電通東京電話】政府는 本年度第一回公債發行으로 七月二十一日 四分利國庫債券(き號)額面二億圓을 日本銀行引受로서 다음과가튼 要項에依하야 發行키로決定하엿다

一、發行額面＝二億圓(其中滿洲事件費一億圓 昭和十年度歲入補塡一億圓)
二、發行價格＝額面百圓에對하야 九十八圓五十錢
三、償還期限＝昭和三十七年九月一日까지(二十七年一個月)
四、利率＝年四分
五、利子拂渡＝三月一日及九月一日의二次
六、初期利子 昭和十年九月一日渡額面百圓에對하야四十八錢
七、利廻步合＝複利四分○九厘利四分一一

西朝鮮合同電氣 成川方面에電送

西鮮合同電氣株式會社에서는 平安南道成川郡四佳面에잇는 三成鑛業株式會社의 三成鑛山及成川面에잇는 三川鑛山에 合計五百五十「키로와트」의 電力을供給키로되엿는데 이와同時에 前記四佳面을 供給區域에編入하야 一般電燈도 供給키로되엿다 그리고成川은 從來 小規模의 單獨發電을 行하엿는데 이번送電連絡에 依하야 一層 豊富한電氣를 엇기로되엿다 그結果同地方에는 以外에 有望한 鑛山이 二、三處잇슴으로不遠間 此等鑛山도 電化될것이라고한다

"政府米拂下"

◇…各地配定數量

【東京電話商通】二十三日 申請接受의 政府米拂下는 全部日本內地米八年產으로 各地別數量은 알에와갓다(以下單位石)
▲大阪七〇、〇〇〇▲門司七〇、〇〇〇▲名古屋六〇、〇〇〇▲神戶一〇〇、〇〇〇▲金澤一〇、〇〇〇▲東京一六〇、〇〇〇▲小樽一〇、〇〇〇▲合計五〇〇、〇〇〇

畢竟鮮航會解體?

尼崎汽船이同盟脫退

【仁川】仁川穀物協會와鮮航會同盟問題로 彼此의機構를破滅케하랴고 暗暗裡에 必死的運動을 하든바 突然 十九日 仁川穀物協會側에 依하면 鮮航會社團의 中樞會社의하나인 尼崎汽船株式會社가 鮮航會를 脫退하엿다는 着電이잇다 果然 이로써 鮮航會側의 混亂을보게될지 其將來가 가장注目處라한다

盟外船使用

日益激增되는形勢 ◇…六月中仁川出荷別內容

【仁川】荷主對鮮航同盟問題로過般來衆報導한바와 갓거니와 仁川穀物界荷主는 全然 盟外船만 使用하는形便이다 이에 六月仁川稅關을經由하야 輸移出된物貨의積出別로본다면다음과 갓다

種類	隻數	米石數
鮮航會汽船	三八隻	五、七八五五石
盟外船	一一隻	三三、一〇三石

盟外船의對策 同盟會에서續協議

鮮航同盟會는 十八日 大阪本部에서 評議會를 열고 盟外船對策을 協議하엿는데 二十日도 評議會를 續開하고 態度를 決定할터인데 目下 朝鮮에 滯來中의 同盟會所屬辰馬汽船의 須藤氏는 二十日 本問題에關한 聲明書를 發表할터이라한다

製粉共販

◇完全解消

【電通東京電話】日淸製粉에依하야 突然提唱된 共販組合의解消問題는 日本、日東兩社에서 大體解消가되엿는데 十八日 日本製粉、日東製粉과 日本製粉의販賣機關三井物産의 三社連名으로 日淸製粉에 回答하엿다 그래서共販은 十八日 完全히解消키로되엿다 目下 新小麥의 出廻最盛期에 直面하야 全販聯의販賣價格統制奏功等으로 各社와도 原料準備에狂奔中으로 共販의 正式解散은 日淸、日本、日東三社만아니라 群小會社等間에도 販賣購買戰이 거듭될는 오늘에잇서 必至의勢로되엿다

西鮮合同電氣 鴨綠江岸地方進出

西鮮合同電氣株式會社에서는 平安北道楚山郡南面에잇는 日本鑛業株式會社의 發銀鑛山에電力三百「키로와트」를 又碧潼郡吾北面에잇는 吾北鑛業所의 吾北鑛山에 二百五十「키로와트」의 電力을供給키로되엿슴으로이를機會로 前記南面及 吾北面外에 楚山郡楚山面及碧潼郡碧潼面、雩時面과 및渭原郡渭原面等의 鴨綠江岸 諸地方을同社의營業區域에編入하야 一般電燈電力을供給키로되엿다 이로써西鮮合同은僻地의鴨綠水岸까지進出한셈으로 自今同地方에도漸次電氣가普及될것이라고한다

米日爲替少影

【京城十八日發聯合】十八日의米日爲替는 前日에 比較하면 賣二十九弗十七仙으로 三仙低 買二十九弗十七仙으로三仙低

繭自由市場은 一道一處必要

이런때에廢止는萬萬不當 製糸側廢止를陳情

旣報한바와가티 朝鮮製絲協會에서는 十八日協議會를열고 協議한結果 「自由市場의存續은 製絲工場의 原料繭蒐集에 支障을 생기게할뿐만아니라 養蠶家의 無智를利用하야 仲介商의 不正事實이 不少하다」는 理由로 農林局當局에 繭自由市場의撤廢를 陳情하기로 되엿다는데 이에對하야 農林當局者의意見을드르면 다음과갓다

現行共販制度에 잇서는正當取引이 完備되지못하고잇슴으로 養蠶家도保官의肉眼鑑定에對하야 적지안흔 不平을가지고잇는터로 養蠶家는 도리혀一道一個所의 自由市場設置를希望하고잇는現狀인 此際에 自由市場을急速히廢止한다는것은問題이다 따라서 이問題도今後各道에絲繭檢定設備가 完備되야 正鑑取引이 全朝鮮的으로普及되기까지는 全然不可能한 問題이다

製絲協會臨時總會 十九日도續開

朝鮮製絲協會에서는 十八日의臨時總會에서

一、蠶絲業積極的獎勵에關한件
二、水原蠶絲部擴張과 獨立에 關한件
三、總督府와 蠶絲部에製絲技師設置에關한件
四、繭取扱場所補助金交付에關한件
五、繭檢定所設置補助에關한件
六、蠶種國營에關한件

을原案대로可決하고 十九日도繼續하야 總會를열고 다음에와가튼議案을討議하엿다고한다

七、產業組合令에依하는 蠶業組合改善에關한件
八、繭自由市場에關한件
九、上簇改良一掃高에關한件
一〇、原料繭調節에關한件
(가) 繭自由市場과 減蠶勵行에關한件

京城人造氷價 十九日부터五厘値上

京城天然氷과 中央物産의協定이되어 人造氷은 現行賣價五錢에서 五厘을 値上하기로 決定하고 十九日부러 實施하엿스며 따라서 小賣價도 다시올를것으로 觀測된다

佛國銀行은 又復一利下

四分를三分半으로

【電通巴里十八日發】佛國銀行은 十八日公定割引步合을四分에서 三分五厘로내렷는데 同行은 割引步合을 지난六月二十日六分에서 五分으로 七月四日다시 四分로내렷는데 法貨가 더욱安定하엿슴으로 이번에이것을 三分五厘로내린것이다

保險業令案 再檢討로遲延

保險業令의 制定에就하야서는이미 日本內地同法에準據하야朝鮮內의 特殊事情을 加味한立案이進捗되던바 最近滿洲國의 保險統制問題의 進展도잇서서 朝鮮內의 環境도顯著히 轉換되엇슴으로 商工課에서는 同法原案에再檢討를加키로되어 目下所管係에서 硏究를進하고잇다 從하야는 저도 年內公布의豫想이던 同令은 相當히遲延될모양이라한다

對滿貿易 出超相當

六月中續好調

【總督府調査】六月中對滿貿易은 好調가 繼續하야 輸出四百六十四萬六百圓으로五萬七千圓增、輸入은 四百五萬四千百圓으로 五十六萬六千圓의 減少、差引五十八萬六千四百圓의 出超인데上半期累計額은 다음과갓다 (以下單位千圓)

輸出	二七、一〇八	二六、七七六	
輸入	二八、一九三		▲四五一
合計	五五、三〇一		一二、三二五
入超	一、〇八四		▲一二、三七

今日財界 (十九日)

[illegible]

經濟界消息

○北樺太石油社長決定＝【電通東京電話】北樺太石油會社에서는 十九日午前 臨時株主總會를열고 社長中里重次取締役辭任에 據兩氏의 辭任을 承認하고새로히 取締役으로 小泉武三、左近司政三、松村松次郞、藤岡淨吉、倉知鐵吉의 五氏를選任하고 新社長으로는 左近司政三氏가 就任키로 決定되엿다고

○朝鮮製鍊所創立計劃＝野口朝鮮社長은 總督府의不足鑛物의製鍊所設置를 計立하고 第一着手로 咸南端川郡에 資本金五十萬圓 朝鮮製鍊所를 新設키로決定하고 準備中이라고

商況 (十九日)

株式 採合裡에軟調

前場低落 今前場外電은 今朝一弗高인 三十八弗二分一이나 綿絲二百圓割로 人氣沮喪되어 紡織株悲觀이며 當地諸株一齊軟調이엇스니 卽昨後引에比하야 東新七十錢低인 百三十七圓九十錢 日產五十錢低인 六十九圓三十錢 大新五十錢低인 八十四圓十錢 朝新二十五圓九十錢에各大引되고 鐘新百十二圓五十錢一本이엇다

後場小往來 後場은東新百三十八圓四十錢에五十錢高 日產六十九圓五十錢에二十錢高 朝新二十五圓七十錢에二十錢低로寄後다시下向하야低價로大引

朝取業績樂觀 米豆部大殷盛

近日米連日狂騰、羅騰으로天井不知의商況인期米는 仁川朝取米豆部의賣買를 殷盛케하야 一日間出來高가 十七萬餘石에達하며十八日現在 今期累計가二百四十萬四百石에 達하는 好績이엇슴으로日來證券部는 閑散이지만 朝取全體의業績은 樂觀되어잇고 더욱期米는 天災市勢展開와아울러 一層活況이 豫期되는만큼 朝新에對하야서도 實物이업스며 今前場은 別로顯著한買物은업섯지만 東新日產等低落에不拘코 二十五圓九十錢으로 三十錢高이엇는데 東新日產이再惡化되지안는다면 朝新의割低買도誘致케되어 仕手가나오면 一段高도잇슬것가는形勢이다

市勢採合으로 强弱觀만區區

六月十九日東京短期東新百三十一圓七十錢에서 한달이지낫서도十圓尺도 示現치못하고 七月十六日百四十圓三十錢을 新聞보합분이며 百四十圓을넘지못해하는가것은 그만큼市勢自體가 弱한것이고 最後大突込이잇고말것이라는것이 弱氣主張임에對하야 五月一日百五十六圓十錢에서 내리밀어 利보弱氣들이 常習的으로 底價를賣하니가 弱味를 挽키는하지만決코大勢가 悲觀되는 것이아니며 第二次戰買의禍根이될것으로서 寸退尺進式의 穩健漸騰으로봄이 妥當하는것이 强氣論이다

그러나 때는夏枯期이오 材料가乏한때이라 强氣로말할지라도 말하자면 實際는 二、三圓의小幅만잇서도 利喰에 汲汲하야 賣

堅實投資時代

株式界는 依然 一段落되고 近頃 株式의 品種에 依하야 그內容과 收益配當狀態로 過去의 過度로 [illegible] 것에對한 再認識的買進에 依한것으로 低金利의 [illegible] 人氣株가아니며 堅實한 投資株에 限定되어잇다 從하야 人氣는 압으로도 動搖를 [illegible] 堅實한 株에는 압으로도 投資時代가 繼續될것으로보아 大差가업슬것이다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illegible]

期米 高價買氣 一息

前場續强 昨後場阪地三十一圓二十七錢止와 共히二十九圓五十七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三十三錢인 六丁反高를拂하고二十九圓七十錢 十三丁高로場을 始한後 阪地三十三四錢을維持하다가結局四十一錢에 止場하엿다

後場伸悩 後場은二十九圓八十錢에 八丁高로도新高價에 始한後 三節六十六錢에 反落되고 四節六十九錢으로 五節六十六錢이엇스며 六十九錢에止場하엿다

米統法의危機

阪當三十二圓

政府는米價를 調節하기爲하야米穀統制法을 實施하고 最高公定價格三十一圓五十錢으로定하고 最低公定價格을二十三圓五十錢으로定하야 그以下의 市勢를 見하는때는 農家를保護하는意味에서 買上을 實施하야 低落을防止하고 最高公定價를突破하는때는 消費層의立場을考慮하야 政府所有米를 拂下하야 高價를防止하려한 것인데 昨今의 市勢는 在米의 極度稀薄을 動機로하야 統制法의如何도 不拘하고 逐日騰勢를 繼續함에이다 實로阪地와如한 大市場의當限은 三十二圓臺를 突破하얏스나 政府의拂下는三十餘萬石乃至五十萬石에 不過하야 何等의 效果를奏하지못함뿐아니라 게다가 政府米六百萬石은 米統法에依한 保存米로賣却치안홀方針인모양이즉 騷進하는大勢를防止하지못할것은 事實이다 그럼으로阪地先限도 三十一圓四十五錢에 올랏고 以上의高價를 演出할形勢인즉 米統法의維持는危機를當하엿다할수잇다

兩派의主觀點

各自有一理?

逐日騰勢를繼續하는 各地市勢는 昨日부터 多少躊躇하는觀이잇다 三百餘丁의 昻騰을告한後이만큼 一押도엇지안흘것갓고 正米의實情으로보아서는 아직도昻騰할餘地가잇는것가튼데 兩派의主觀點에依하면 硬派는 今回拂下되는 五十萬石의米는 昭和八年度의產米로서 渡米化할品格의 劣이아닌즉 結局渡米蒐集의窮屈을免치못하게되고 民間의 所有로서 渡米에 供할마한 쌀은 大部分買方의 手中에 潛在하고 잇슨즉 政府의 拂下繼續與否가 本年稻作의 豊凶如何를 不拘하고 來八月까지는 絶對瓦落을 許하지안흘것이라하며 軟派는 政府米의 拂下나 稻作의順調에 反하야 渡米調達에 何等의影響이업다할지라도 前途需給의 不安을緩和케 하는데는 稻作의良好는 當分低落을 許하지안는다할지라도 買氣는업마큼 緩衝될것이라고 此以上의暴騰은 容易치못할일이라고 主張한다 此兩方의 主觀이各其一理가 업는바는아니나 極度의品貧에 日勝하게도는 現實의事情이 優勝權을 把握하지아흘가한다 果如何?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二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二一六五

爆發高難免?

硬派의獨舞臺

需給不安과 作況悲觀으로全硬派의 獨舞臺의모양이오 渡米調達難或側이 强硬히 買藩躊躇하야 實物의 拂底無狀態이다 納會接近과 共히七限을中心으로 爆發高를難免할模樣이라한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買方 ◇賣方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田中貞의 先限氣預買에對하야 神戶의高橋藤入이深甚하고 潮崎로부터 三三〇〇石買進하얏다 東京側의乘換과新規買가顯著하얏다 他市場으로부터

各地正米

京城保合 定期高를 [illegible] 氣配는保合인丸仁二十九圓七十錢 四等二十九圓三十錢 一等白米十一圓七十錢

仁川不變 定期高에追從하야高價를示現하고 [illegible] 不能이오一息商狀을呈한(三等二十九圓七十錢 四等二十九圓二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二十錢

釜山續騰 市場實物 [illegible] 續騰하야 [illegible] 一等白米十二圓二十錢

大邱暴騰 日本內地 定期側의 渡米調達難을 豫想하고 思惑側이 强硬히 買藩躊躇하야 市勢物이 拂底하고 相俟하야 [illegible] 四十錢昻騰을 告하얏스나 市況은 閑散한 角ヶ三等二十九圓四十錢 一等白米十一圓九十五錢

群山一息 廻着五輛前日來의昂騰으로 價位關係上賣氣가稍하나 日本內地는割高인 朝鮮米에買氣가薄하고 淸算高에比하야 取引不振場面인 角ヶ三等二十九圓 九十錢 四等二十九圓八十錢 一等白米十三圓二十錢

木浦躍進 淸算의續昻進과 端境期의 需給事情으로 在庫拂底와相俟하야 全혀賣物이업고 當用側의 狼狽的買氣가잇서 氣配四十錢躍進을보한丸米多摩三十一圓二十錢 四等三十一圓 丁雄町等二十九圓七十錢 四等二十九圓五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五十錢

南浦不變 繼續하야定期高를보고實物이極度로薄한一方賣方은高價不添의모양으로閑散商狀을示한㋥穗尾三等二十九圓五十錢四等二十九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一圓九十錢

市場六感

株

朝新은 米豆部殷盛으로 業績樂觀人氣盛이오 强含▲東新、日產은 戾一巡으로 低迷繼續▲內外諸情勢 舊態依然、後援材料發見難▲後의 採合은 定期的市勢라할가▲鐘紡期로보든 押目買人氣와 大勢未底入으로보는 戾賣人氣가相衝되어 混濁의形勢▲人絹은 休錘一割增으로 戾步調이나 綿業不安再擡頭、加工稅賦課案 米上院通過形勢로 生絲前途憂慮等 環境은 依然不良 ▲秋高豫 期待할지라도 豫算編成이 輪廓이라도 보이거던 사도決코 늣지 안케다는것이高價行進阻止의一因▲例의都新聞의「や」の字라는 依然徹底한大弱氣로曰『大底入으로 認한이市勢는 結局增稅를充分히賣하야 大底入이되기까지戾賣一貫이라」는고▲六感子曰 苦熱에쓸데업는强弱觀은 집어치우고도잇거던避暑나가는것이若何?

米

續騰하는市勢는 此邊에서幾分躊躇하는觀이잇스나 그러나 押目買氣는依然潛在▲政府의拂下도 效果를奏하지못하고 稻作의順調도全혀度外視함을보면 現實의正米事情이 얼마나窮迫함을 可知▲來二十一日부러 土用入인데日本內地의 天候가何如?日本海에 突出한高氣壓이 低氣壓을 몰어 오지못하게 버티고잇는것을보면 土用天候가無事할지도亦未知▲그런데 朝鮮의天候는흐리엇다 개엇다 햇는추엇다더웟다하는 奇怪한現象이니 稻作에 好影響을 주지는못할모양▲北部地方에 怒濤濁浪으로 稻作의被害가 업지안코 南朝鮮一部에는 依然旱天으로農家의 愁眉를펴지못하는 現象▲大勢는아즉도 昻騰할餘力이 多한모양이니 이러고보면 米穀統制法은 不知中깨저지안홀가?▲最高公定價를突破하는때는 大量拂下로서 高價를防止한다고 聲言한政府는 親若尋常하고잇스니又復一高는難免?

金融 十九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 十九日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十九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絹布◆ ◆日本麥粉市勢◆ ◆スフ旦期麥◆ ◆錦油入價◆ ◆綿絲冲價◆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大阪綿糸◆ ◆大阪綿花◆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illegible]

株式 十九日

◆朝取短期◆ ◆實定代引日步◆ ◆大阪長期◆ ◆大阪短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短期◆ ◆東京現株◆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期米 十九日

◆朝取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各地期米◆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